

대구광역시 일보

대구 0~10℃ 포항 1~11℃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2897호 단기 4336년(음력 11월 9일)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올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점: (053) 611-6205
달성점: (053) 623-1752
화원점: (053) 635-5100
다사점: (053) 591-1780
대실역점: (053) 591-7240
현풍점: (053) 611-6203

달성축산업협동조합


고령의 명품쌀 고령유미



2009년 경상북도 최우수브랜드 선정
2010년 영남대 우수품 선정
2014년 경상북도 최우수브랜드 최우수 선정

구입처: www.gmall.co.kr
고령RPC: (054) 955-9512
고령농협: (054) 950-7311

영일대



그록한 문익의 일기! 맑은 영혼의 울림
한국문익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숨쉬는 곳!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달

산주 조합원과 더불어 미래의 녹색성장을 산림조합이 함께 이끌어 갑니다.

영양군산림조합

전화: (054) 682-8476-7
팩스: (054) 682-3413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대구·경북 '올미년' 새해 일출 어디서 볼까?

포항 호미곶 영일대 광장
경주 토함산, 성주 가야산
대구 합치산, 화원동산 등

올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이 위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치러진다.

포항은 '상생의 손' 조각상으로 유명한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제17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이 열린다.

이번 해맞이축전은 해맞이 행사 뿐만 아니라 국악콘서트, 풍물 길놀이, 불꽃 쇼 등 다양한 즐길 거

리가 마련된다. 특히 돌레 10m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솥에서 끓인 '1만 명 떡국 나눔 행사'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호미곶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32분.

국내 최초 해상누각인 포항 영일대도 또 다른 일출 명소다. 북구 항구동에서 두호동으로 이어지는 백사장이 시가지와 가까이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영일대에서 맞는 일출 시간은 오전 7시32분이다. 경주 토함산도 해맞이 장소로 유명하다. 불교 성지로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고 있는 토함산 정상에서는 감포 앞바다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토함산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32분이다.

공공기관 불법현수막 내걸기 앞장 '단속외면'

중구청·대구시교육청·경북대 병원 불법현수막 판 치고 있어 단속 외면 시민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대구시 중구청의 불법 현수막 단속이 허구호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구시 중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상업 현수막은 물론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를 시작한다"면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1개월이 지난 28일, 중구 도심 일대에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불법 현수막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그리고 경북대 병원노조, 중구청 등 관공서와 의료기관, 공무원, 노조 등이 앞 다퉈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대구시 교육청이 경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정문 입구 쪽에 '대구방송통신중학교 학생모집'이란 홍보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었다. 시 교육청은

물론이고 이를 묵과하는 학교 측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이다.

경북대 병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북대 병원 울타리에 설치한 10여개의 현수막이 농성장이 아닌 도로변을 향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정당한 노동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산교회 앞 신호등에까지 침범한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중구청의 선택적 단속의지도 문제이다. 반월당 네거리 반월당역 21번 출구 앞에 '중구 근대로의 길'이란 거대한 스티커 광고가 메디컬타워 공사장 안전 가림막 면에 공룡처럼 붙여져 있고, 다시 그 위에 메디컬 전문상가 분양 광고가 덧붙여져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약령시 남성로 50번지에 '성내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안내'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다. 이는 중구청이 지난달 25일 "상업현수막은 물론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알린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내

성주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가야산 해맞이'는 풍물공연과 함께 축시 낭독, 해맞이 떡 자르기, 액막이 연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로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울해로 19회째인 영덕군의 '영덕 해맞이 축제'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아 신도청 시대 개막 이벤트와 도민화합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식'도 열어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영덕군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33분.

대구에서도 각 구·군별로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북구청은 운암지 수변공원에서 '합치산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어북 나눠먹기와 새해소망 쪽지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화원을 화원동산 전망대와 가랑면 최정산 등 다양한 일출 명소가 있는 달성군은 사물놀이, 새해 기원제,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김치역 기자



2동 청사 이전 안내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약업사를 운영하는 김모씨(63)는 "20여일 전에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바람이 불면 필력거리서 소리가 의외로 신경에 거슬린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중구청 관계자는 "성내 2동 현수막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허용했을 뿐 모든 현수막을 규정대로 100%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현수막 게시대 외에 설치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은 8만 원부터, 부동산 시 행사나 건설업체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대병원 현수막은 노조가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후 내건 것이고 다만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많아 현수막을 가로수에 묶지 말고 농성중인 장소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어쨌든 경북대사범대 부설고와 공평네거리의 '공적연금 민영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문제가 된 곳은 혐의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준관 기자

보통반인리

맛, 품격, 영양, 품격, 가족건강 최고

(054) 749-9999 / 010-9575-9999

오늘의 Hot



경북대병원 파업 33일째
'취업규칙 변경' 초강수 카드 발동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이 33일째로 접어들 가운데 병원이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보고 시한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병원은 노조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기로 했다.

29일 경북대병원과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19차 본교섭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병원은 오는 31일까지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까지 이행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동결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은 노조를 배제한 채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복지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했다.

병원이 제시한 취업규칙 변경안에는 보건수당 및 퇴직수당의 폐지 또는 축소, 정원유가 및 하계휴가 일수 축소, 연차 미사용분 보상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일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오히려 병원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교섭이 결렬됐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병원이 비번인 직원들을 갑자기 출근시키거나 출근한 직원들에게는 동의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현 기자

Eride Gyeongbuk

경상북도! 도로철도공항 확충으로 지도를 바꾸다



- ▶ 녹색교통망 확충으로 전국 어디든 1시간대 접근
- ▶ 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田자형 국토개발의 핵심
- ▶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한반도 황금허리 창조경제권 구축
- ▶ 상생의 하늘길(신공항, 울릉공항) 조기건설

경상북도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추진’

특권 내려놓기 혁신 1단계 마무리

새누리당이 29일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추진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혁신), 국회법 개정안(경직 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확정위)을 비롯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모두를 당론으로 받아, 혁신 1단계를 마무리한다.

혁신위원회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가 이날 의원 총회에 보고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에 의원들 모두가 동의해 추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 지난 의총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가운데 법안 총동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래서 혁신위는 법안 내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해서 (안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총에서 다 동의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말은 안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그 지적을 수용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추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윤석, 권성동 의원 등이



발언대에 나서 “이제 실질적 불체포특권 내려놓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체포를 하기 위해서 혁신안 통과 이후에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는 이름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혁신방안’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혁신위는 앞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혁신안 추진에 실패했다. 이후 체포동의안 보고 72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해당 의안을 보고해

표결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진 출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때 우선 판사가 구인절차 없이 국회의원의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해 자진 출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엔 종전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판사

로부터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국회의원의 피의자는 반드시 자진출석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집행하기 위한 체포나 구인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필요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자진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해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및 석방결의안을 처리해야 할 경우 표결은 기명으로 해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새정치 “국정농단 문건유출 쟁점기만 남아”…공세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정윤희씨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검 공세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 수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청와대 유출 문건의 내용을 밝히는 게 이 사건 핵심이지만 검찰은 유출된 문건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이제 특검을 통해 밝히야 한다”며 “검찰은 스스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비대위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문건유출이란 쟁점기만 남았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만 보더라도 청와대 내부의 국가문란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비대위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이 관리해야 할 대상인 대통령 동생에게 내부문건까지 갖다 바치며 충성심을 보였다”며 “검찰 수사의 결론”이라며 “검찰은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제대로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소위 심상사 모임을 없앴다는 결론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뉴스

‘토크콘서트’ 중복 발언 황선 대표 경찰 출석

‘토크콘서트’로 중복 논란을 빚은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김중권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 청사 로비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사건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마녀사냥하듯 진행해 온 일”이라며 “오늘 경찰과 진위를 다룰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복콘서트’ 발언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수사 기관은 수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40여일에 걸쳐 통일 콘서트를 ‘중복 콘서트’라고 명명하고 마녀사냥을 해왔다”며 “일부 언론은 ‘지상낙원’과 같은 어휘를 쓴 것처럼 거짓 사실화 해 악의적으로 마녀사냥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거짓 선동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낳았음에도 경찰은 피해자 가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테러 피해자를 공안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경찰은 테러범의 집이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신은미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토크콘서트를 강행해 테러까지 일어나게 했느냐’고 추궁해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됐던 것과 달리 경찰 대공수사팀 관계자가 카메라 등을 막아서며 도중에 중단됐다. 황 대표는 발언 도중 조사실로 올라갔고, 나머지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대체됐다.

앞서 황 대표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중복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 대표를 소환해 토크콘서트 도중 북한인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황 대표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보수단체가 고발하기 전인 지난달 17일에도 황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朴대통령, 스와라지 印외교장관 접견

모디 총리 방한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 8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간 현안과 내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한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전화 통화와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 등에서 내년 상반기 모디 총리의 국빈 방한을 초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모디 총리께서 5월에 취임한 이후로 과감한 투자정책을 펴고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해서 국제사회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하시는 일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지난 1월에 인도를 방문 했을 때 정말 한국과 인도는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최적

의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이번 11월에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에 대해 뜻있는 대화를 가질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아주 강한 기반 위에 구축돼 있다”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를 국빈방문했을 당시 하원 야당대표였던 스와라지 장관과 접견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 만남이다.

첫 만남에서 박 대통령이 생일이 12일 빠른 점을 들어 자신이 ‘언니’라고 말하자 스와라지 장관은 면담 말미에 “땡큐(thank you), 언니”라고 말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스와라지 장관은 이날 접견에서도 “지난 1월에 방문하셨을 때 좋은 추억이 있다. ‘언니’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박 대통령과 함께 웃었다.



자원외교 국조 ‘MB정부’ 명시 안내

여야, 해외자원개발 외교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포괄적 적용키로

여야가 29일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의 대상 범위를 사실상 해외자원개발 외교를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키로 한 셈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일체’라고 명시했다.

이밖에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

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의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정부, 공공기관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포함했다.

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명박 정부를 명시하자고 요구해 왔고, 여당은 특정 정부만을 명시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사실상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수석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명확한 주제와 실행과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당 측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오늘 공포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내년 3월31일 부터 시행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30일 공포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인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법에 근거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퇴직공직자가 교수 등으로 취업했다가 2년이 지나면 재직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던 기존 관행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업에만 한정됐던 취업제한기관 목록에 시장형 공기업이 포함됐다. 안전감독 업무, 이관업무 등이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됐다.

사람대학·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퇴직공직자가 대학 구조조정, 사회복지법인 운영 등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줄였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의 취업신사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해당 자격증 보유 공직자들이 퇴직 후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그 공직자가 차관급 이상일 때만 취업신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모두 취업신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신사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거나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 받게 된다.

또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심사, 업무취급 승인 심사

‘국민연금법’ 본회의 의결 국회,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 상태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채납 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300 인	재직: 218 인	상선: 196 인
김도현	김민기	김상희
김문기	김윤익	김준호
남성민	노영민	노준희
박준호	박기순	박인수
박우현	박재원	박종근
송호근	송효진	신경민
송준우	송정열	오기석
유승희	유은혜	유종진
유재현	이성민	이현우
이재준	이종걸	이태진
이영호	전병헌	전병준
조경자	조승환	조희경
송다예	한영숙	홍경표

등 결과를 관할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다.

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거나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이를 10년간 매년 2월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운영을 투명하고 더욱 엄격히 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또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금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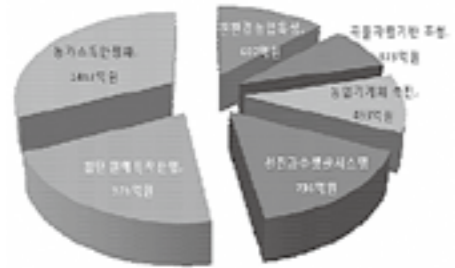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공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2014 경북도정 결산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3



경북, 2015년 안전먹거리 구축
지난해 8.2% 증액 4652억 투입

경북도는 대외적으로 한-미FTA 발효, 한-중FTA 타결 등 시장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 농산물 수급불안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 곡물자립기반 조성, 농업기계화, 선진교수생산시스템 구축, 첨단 원예·특작산업 육성, 농가소득 안정화 6개 분야 81종 사업에 지난해보다 8.2% 증액된 4652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기질비료 지원, 전략적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22종 사업에 607억 원을 투자한다.

낮은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쌀, 맥류, 잡곡류 등 곡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73억 원을 투입해 2014년 43개소인 고품질 쌀 경영체를 4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14종이다.

또한, 농가 일손 부담 경감 및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수형농기계공급, 벼 육묘공장 설치, 벼재배 생력화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사업 등 14종의 사업에 4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736억 원을 투자해 2014년 9900ha인 키타는 사과원 면적을 1만12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실 품질유지제 지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등 12종이다.

아울러, 첨단 원예·특작산업 육성을 위해 976억 원을 투자해 금년 2800ha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을 3400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화훼생산시설경쟁력 제고,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보급,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설치, 시설원예품질개선, 소득작목육성,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14종이다.

김성용 기자

‘환경 살리고 기부도 하자’

폐휴대폰 수거 수익금 1400만 원 기부

경북도가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통해 폐휴대폰 1만 7천대를 수거했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원활동가와 이웃들이 실천을 위해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학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존 목표보다 2천대 많은 1만 7000대를 수거했다.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폐휴대폰 매각 수익금, 1천 4백여만 원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20개 기부처에 기부하여 장학금,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로 ‘2014년도 폐휴대폰 수거캠페인 우수기관’으로 선정, 환경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하게 됐다.

박창수 도 환경정책과장은 “폐휴대폰은 금, 은, 구리 등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재활용이 가능하며 도민이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중금속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과 함께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칠곡,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 ‘대상’

경산시·김천시, 최우수
포항시·예천군, 우수상

경북도는 29일 도청강당에서 열린 정례식회에서 ‘2014년 경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대해 도지사 상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평생교육 시책 평가 제도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의 인식을 제고해 시군 간 교육 격차

를 해소하고, 도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평생학습도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을 구분해 평가했다.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수 프로그램 강화, 평생학습으로 인한 주민의 사회적 활동, 시군의 평생교육 체제 확대, 전략적 평생교육 사업 추진실적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시책 성과를 평가했고, 각 시군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수상 기관별 공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을 받은 칠곡군은 우수한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기반으로 평생교육과 인문학을 접목, 명실상부한 인문학 평생학습도시로서 특히 올해 제2회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내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평생학습도시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경산시는 평생교육을 통한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학부모합창단을 지역 차원에서 양성해 주말을 활용한 온 가족의 건전한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시되는 가족의 소통과 화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도시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은 김천시는 예비 평생학습도시로서 전반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소외계층 프로그램, 마을작은도서관 운영, 배달강좌,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평생학습도시 부문의 우수상을 받은 포항시는 2013년 건립된 평생학습원을 거점으로 남구와 북구에 평생학습관 4개소 건립, 29개 전 지역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체제 구축으로 주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이 돋보였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한 해 마무리 ‘직원 화합한마당’ 열어

맘·열정 이뤄낸 눈부신 성과 격려
영상물 상영 감동! 공연연기 후끈

경북도는 29일 도청강당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한 표창 수상자 등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참여중심의 2014년도 마지막 정례식회 및 송년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민선6기 첫해를 마무리 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석회에는 퓨전음악을 시작으로 표창 전수, 취미클럽 공연, 영상물 상영, 사진전시, 다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시상식에서는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분야별로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국·도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정부표창 전수와 도지사 표창 수여가 있

었다.

그 중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 주워지는 MVP공무원에는 창조경제과학과 김민환 사무관과 신도시조성과 한은정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도청노동조합 주관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간부공무원을 직원들이 직접 선정해 수여하는 ‘신바람 상’에 신은숙 독도정책관과 박창수 환경정책과장과 권태영 영양고추시험장이 수상했다.

한편, 폭설피해 복구, 야근, AI방역, 청사방호, 봉사활동, 취미클럽 활동, 장보기 행사 등 직원들의 에피소드와 힘들었던 장면을 담은 영상물 상영에서는 직원들의 큰 공감을 얻으며 감동을 연출했으며, 강당 입구에 마련된 직원 활동사진 전시는 직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특히, 직원들로 구성된 음악 동호회(사운드 G#, 프라이드 합창단, 기타소리, 색동회)의 신나는 공연은 열렬한 함성과 박수를 받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화합의 장을 펼쳤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년 한 해는 마우나리조트 붕괴, AI발생,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삼성과 POSCO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두 곳에 출범해 경북의 창조경제 기반을 다졌고, 국가예산 11조원 확보, 투자유치 4조 원, 68조 원 대의 광역SOC망 건설사업, 해양실크로드 대장정 성공 등 여러 분야에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이러한 성과는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 노력한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성용 기자

민간인 표창	기관표창
10명	10개 기관
도지사/산업단지유공 염씨염씨 최영민	대통령/환경관리실태평가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최우수 영천시
도지사/산업단지유공 세화프라스틱 정평운	도지사/토지행정종합평가 최우수 김천시
도지사/산업단지유공 광안산업개발 조오연	도지사/자체감사활동유공 최우수 영천시
도지사/우리문화해 찾기 위원장 성달표	도지사/자체감사활동유공 최우수 예천군
도지사/우리문화해 찾기 전문위원 신영아	도지사/중소기업육성시책평가 최우수 구미시
도지사/재난예방 운영 대기10요원원 우태관	도지사/경북환경상 최우수 삼주시
도지사/도정발견유공 J태크글로벌지 조영민	도지사/경북환경상 최우수 의성군
도지사/도정발견유공 해랑마을연합회 최현진	도지사/평생교육시책평가 대상 칠곡군
도지사/역사도시사업유공 한국전력기술 관병민	도지사/평생교육시책평가 최우수 김천시
도지사/역사도시사업유공 대림산업(주) 홍우기	도지사/평생교육시책평가 우수 포항시

경북도 문화재 위상 2014년에도 빛났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건
중요민속문화재 2건 등 록

경북도는 올해 국가지정문화재를 6건 등 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하는 보물은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의성 만취당, 의성 대곡사 대웅전, 청송 보광사 극락전 등 4건이 지정됐고,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육·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을 지정하는 중요민속문화재는 안동 향산고택,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고택 등 2건이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보수 예산과 관리비용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도비 절감 및 국비 증액 효과가 상당하다.

또한,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을 상시 관리하는 안전경비인력 배치와 소방·전기·방재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화관리유역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부터 역사·예술성이 뛰어난 국가지정문화재 가치가 인정되는 도지정문화재를 선정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해 소유자나 시군으로 하여금 승격 신청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현지조사와 가치 재조명을 통해 우리지역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두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 문화재의 가치증진과 위상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북의 문화재가 한국의 것을 넘어 세계인의 것이 되도록 문화유산의 세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보물 제1817호)
- △의성 만취당 (보물 제1825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보물 제1831호)
- △청송 보광사 극락전(보물 제1840호) △안동 향산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
-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82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의성 대곡사 대웅전



청송 보광사 극락전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안동 향산고택



의성 만취당



김성용 기자

사회

대구광역시보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4

지적장애女 성폭행미수 버스가사 ‘집행유예’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승객이었던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별을 확인해 주겠다고 불려내 성폭행하려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가을 버스 승객으로 만난 A(20·지적장애 2급)양에게 “군대 후임을 달았다, 남자같이 생겼다”며 접근,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모텔에 A양을 불러 “성별을 확인해 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식 기자

대구서 20대 정신이상자 노상에서 현금 수백만원 살포

29일 낮 12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성당지하철역 2번 출구 횡단보도에서 안모(27)씨가 현금 수 백만 원을 거리에 살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가 이날 거리에 뿌린 돈은 현금 900만 원(5만 원권 180장)으로 지난 9월부터 가방속에 넣어 다니던 현금 4730만 원 중 일부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가 휴대하고 있던 현금 중 2830만 원은 작고한 조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드러났다. 또 1100만 원은 22일 한국투자증권 강장점에서 인출, 나머지 800만 원은 17일 차량 구입을 위해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의 부모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식이 지난 9월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관 기자

고령서 돈사 화재... 1000만원 피해

28일 오후 10시44분께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거리 배모(46)씨의 돼지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돼지 35마리가 타 죽고 축사 1동(198㎡)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양수 기자

김천췌 보안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

경북 김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께 교동의 교동마당에서 보안협력위원, 북한이탈주민 26세대를 초청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4년 김천경찰서 보

안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을 가졌다.

식순에 의해 진행된 행사에는 윤여애, 이창영 위원이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 기여에 대

한 유공으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김훈찬 서장은 “보안협력위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앞으로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규복 기자



원전세 ‘9년 만에 현실화’ 된다

만장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kWh당 0.5원→1원+α, 100% 인상, 연세수 328억→726억원 이상장담

원자력발전부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가 100% 인상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재석 198명 찬성 198명으로 통과했다.

이는 2006년 원전세를 도입한 지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이로써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 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11월13일) 준

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 원이 늘어난 7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추가 건설·계획 중에 있는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돼 실제 세수도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거두어들인 원전세는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세입으로써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여 지게 된다”며 “특히 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

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북도와 지역자치권이 합심해 이루어낸 것이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관계자와, 의원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조원진 의원 등 지역자치권에서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원전세 현실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라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김성용 기자

총장 임명 제청 거부... 교육부 “왜 이러나”

경북대 총동창회,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성명서’ 발표

경북대학교 총장 공석이 4개월째 지속된데 이어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거부가 계속되자 경북대학교 총동창회가 2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경북대 총장 후보자 임용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2015년 새해부터는 18대 총장을 중심으로 한걸음 도약할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실망으로 무너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



는 경북대학교가 추천한 총장후보자들이 총장으로 임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달라”며 “경북대학교가 빠른 시간 내 혼

란과 불안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구성원들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종관 기자

“유교문화 쉽게 익혀요” 유교랜드, 새로운 콘텐츠의 겨울방학 특별행사 개최

경북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안동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2월 1일까지 입장료 할인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특별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행사기간 동안 입장요금 2000원 할인과 지난 특집행사에서 호평을 받은 스탬프투어링북 및 캐릭터블렌, 도깨비스티커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한다.

또 코레일 경북·대구본부와 협력해 내년 2월 28일까지 내일로 티켓 소지자에게는 입장료 45% 할인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유교랜드는 기존 체험시설에 신규 콘텐츠를 도입했다. 외국인관광객의 유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시안내시스템을 도입,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각 전시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했다.

청년선비촌에서는 관람객의 눈앞에서 별이 쏟아지는 동시에 별자리를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 체험’을 개선해 선보이며, 중년선비촌에서는 ‘진주성 작전회의’를 통해 군사회의에 참여하는 체험과 포토존을 추가했다.

선비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노년선비촌에서는 안동의 전통풍류인 ‘선유줄불놀이’를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불꽃이 줄 따라 날리며 부용대의 탄생과 허 도령의 전설을 미디어파사드 방식으로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지상 1층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신설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체험공간도 마련했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유교랜드는 가족들이 안전한 실내에서 유교의 기본덕목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며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유교에 대한 체험과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수돗물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K-water의 새로운 약속 지금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물, K-water 프로젝트

Smart Water Grid 스마트 그리드
Smart Water Grid는 원천 수질관리부터 상수도 배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K-water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수도의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합니다.

인생에 새로운 건강을 선물
100% 정수된 안전한 음용수가 상수도 배관을 통해 전국 각지로 공급됩니다. 인공적인 염색과 향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otal Care Service 총괄
이웃을 생각하는 K-water는 수돗물 안전을 위한 24시간 긴급 대응 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water는 전국수돗물사업자들과 함께 노력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사진'... 7개월 이상 대기는 다반사

국공립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5명 중 1명은 7개월 이상의 대기 신청을 한 끝에 아이를 입소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유아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 영유아의 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자녀를 입소시킨 응답자의 20.9%가 해당 기관에 입소시키는 데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6%로 절반에 못미쳤다. 대기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6.6%, '4-6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3.8%였다.

입소가 어려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더 심했다. 7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은 어린이집(22.1%)이 유치원(18.9%)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대기가 없었다는 대답은 어린이집(45.3%)이 유치원(54.1%)보다 낮았다.

국공립 기관에 비해 민간 보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소하는데 대기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81.6%(사립유치원 79.3%·민간어린이집 82.8%)였으며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답변은 6.4%뿐이었다.

국공립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구분	대기기간 없음	3개월 이하	4-6개월 이하	7개월 이상	계	비율
전체	29.6	15.6	7.1	8.9	100(94.2)	
지역구도						
수도권	64.5	16.2	8.9	10.3	100(92.8)	
중소도시	23.6	11.7	6.3	8.4	100(92.0)	14.0%
영남권(경북·경남)	50.4	11.3	5.6	2.8	100(90.1)	
비수도권						
국공립유치원	54.1	13.5	13.5	18.9	100(111)	
사립유치원	79.3	13.3	4.8	2.7	100(100)	13.0%
국공립어린이집	45.3	16.6	16.6	22.1	100(117)	
민간어린이집	82.8	11.4	2.7	2.1	100(107)	
비수도권						
유치원	48.6	16.6	13.8	20.9	100(92.8)	13.0%
어린이집	22.1	16.6	11.3	22.1	100(94.8)	

에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었다. 201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22.3%나 돼 전체 평균(9.5%)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부산(13.5%)과 강원(11.3%)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대전(2.8%), 대구(3.0%), 광주(4.4%), 제주(4.4%), 충남(4.5%), 전북(4.7%)은 5%에 채 미치지 못했다.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78.1%)가 가장 높았으며 전남(47.8%), 충북(47.8%), 제주(41.3%) 순이었다. 반면 부산(8.8%), 대구(12.1%), 서울(13.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현황과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급량 대비 보육생들의 이용률도 따져봤다. 이용률이 높을수록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보육생들의 입소가 어

려운 지역임을 뜻한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서울 구로구였다. 구로구는 이용률이 95.21%로 전국 평균(87.89%)보다 7.3% 포인트나 높았다.

이어 경남 거제시(94.73%), 경기 구리시(94.48%), 서울 관악구(94.45%), 부산 부산진구(94.45%), 울산 동구(94.41%), 서울 용산구(94.39%), 경기 광명시(94.29%) 순이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66.36%)은 공급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경북 군위군(68.84%), 경북 청송군(69.05%), 충남 서천군(69.17%) 순이었다.

조사 대상 중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는 '아이의 전이적 발달을 위해'(32.9%),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32.2%), '사회성 발달을 위해'(18.3%)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아이가 어려서'(53.5%),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24.1%) 순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보육 교육서비스가 이용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하는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별·영유아 연령별로 보육·보육서비스 수급 계획을 마련해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 각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평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원룸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8일 오후 11시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의 한 원룸에서 A(45)씨가 숨져있는 것을 집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시신 옆에는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와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루어 숨진 지 20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년 전 화재로 온 몸에 화상을 입어 그동안 힘들어 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종관 기자

대구·경북, 식당 화재로 1400만원 재산피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식당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9일 새벽 3시15분경 경북 경주시 천북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방서 추산 99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휴일인 지난 28일 오후 1시55분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55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치현 기자

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한다

앞으로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허용 건의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교통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부터 새로운 납부 방식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전면 도입하고 2015년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지난해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활동을 통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혈압계와 체온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하 전 검정을 받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중규제가 해소



된다.

정부는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업체가 연간 3억 원의 검정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작성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전시회에서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려고 해도 식품접객업 상 시설 기준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령이 정비된다.

기업도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기업도시 이전 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입주 시한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10월8일부터 11월28일까지 1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 166건 중 75건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진단이 수용한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는 △연전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고체연료 발전시설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변경 △먹는 해양성종수 유통기한 연장 서류 완화 등이다.

추진단은 현재 부처 협의 중인 18건의 과제들도 1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불수용 과제는 3개월 내에 부처와 재협의할 계획이다.

뉴스스

대구 중견업체 고품미콘 대표, 사기혐의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영 부장판사)는 10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품미콘 대표 박모(6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0월 직원과 공모, 제삼자 명의의 가공 매출채권을 이용해 한 시중은행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16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

신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 대출 금액 가운데 상당액이 지금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자신은 자세한 내막을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아직도 인하대 이사직 유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일 인하대학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29일 현재까지도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조현아 정석학원 이사는 지난 12일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은 조현아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인 이사회를 구성, 법인 등기부상 이사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아직까지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 시민단체는 "이사회 17명 중 10명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임원들이며 이사회 중 최희선, 박도순, 강희중, 박춘배, 신현아 이사는 조양호 회장과 경북고 동문 이력을 지닌 인물들"이라며 "결국 정석인하학원 이사 구성은 대부분 조양호 회장의 족벌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측 관계자는 "현재 조현아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에 대한 의견권이 없어 사실상 사임한 것이지만, 행정처리 절차가 늦어지면서 현재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2월께 이사회를 열고 등기부상 이사를 재선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일일승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



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스

“포괄간호서비스”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간병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 간병인비용 절감, 병실간호료, 간호사 인건비 절감
- 간병인 비용 부담 완화, 의료기관 경영 안정
- 간병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간병인 인건비 절감, 의료기관 경영 안정
- 간병인 인건비 절감, 의료기관 경영 안정

국민 부담

간병인비용 절감, 병실간호료, 간호사 인건비 절감

국민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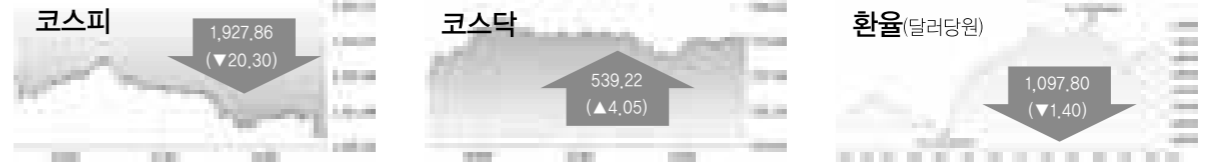
간병인비용 절감, 병실간호료, 간호사 인건비 절감

문의처: 포괄간호서비스 담당자

전화: 120-1200

팩스: 120-1201

홈페이지: www.pnss.or.kr



경주 진현동~감포읍 나정리 국도 4차로 전면개통



부산국도청, 산악도로 사고위험 해소...동해안 접근성 향상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경주시 진현동에서 감포읍 나정리를 연결하는 국도4호선 17.64km 구간 건설사업이 모두 마무리돼 30일 오후 4시부터 4차로로 전면 개통한다. 경주시 진현동과 감포읍 나정리를 연결하는 국도 4호선 구간은 지난 2004년 2월 착공해 토함산터널 1개소(4345m), 교량 13개소,

교차로 9개소 등을 포함해 4차로로 개통하게 됐으며 총사업비는 3400억 원이 투입됐다. 기존의 국도 구간은 경주 토함산을 관통하는 2차로 구간으로 그동안 선형이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4차로로 개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동경주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경주 방문관광단지-북국관광단지-감포관광단지의 연계성이 향상돼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주~감포간 국도 4호선 17.64km 구간 전체를 이번에 4차로로 전면 개통함으로써 통행시간이 35분에서 25분으로 10분 가량 단축될 수 있게 됐다. 부산국도청 관계자는 "이번 경주-감포간 도로 개통으로 오는 2016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월성원전 등 주변 국가기간산업시설과 주요 지역과의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불국사(석굴암), 경주국립공원(토함산지구), 문무대왕릉(갑은사지, 이견대), 감포지역 해수욕장(전촌, 나정, 봉길) 등 관광연계가 크게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 공무원, 혁신센터 견학 나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R&D 기관 견학

최근 17개 시·도에 기업·지자체, 정부부처가 손을 맞잡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육성시키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순수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출범하고 1월말 개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29일 창조경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포항시 직원 80여 명과 함께 지국 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POSTECH C5동 포항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R&D 기관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민간자율형 포항혁신센터와 건설중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현장을 방문해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민선6기 출범이후 접체 되어가는 철강 산업에서 탈피하여 포항산업 구조 다변

화를 꾀하고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축을 만들어 융합 발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대·중소기업간 융합, 상생 발전 정책을 수립 정부와의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해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 멘토링부터 자금, 투자연계까지 지원하는 창업 지원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공간을 지원해 예비 창업자의 제품 완성도와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원기 기자

빛으로 강제 압류·해지된 청약통장 5년간 22만건

빛으로 강제 압류 및 추심,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건, 38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나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21만 9966건(좌), 금액으로는 3838억 원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청약종합저축이 12만6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저축이 4만1497

건, 청약예금 3만789건, 청약부금 2만725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청약예금이 1500억여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압류나 강제해지 됐다. 청약저축 893억여 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 원, 청약부금 554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추세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만7000여 건(456억여 원)에서 5만여 건(1000억여 원)으로 급증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경기에 따라 다시금 급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 호미곶해맞이축전 스마트폰으로 전국 생중계

포항시의 호미곶해맞이축전이 스마트폰으로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포항시는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의 주요 행사와 새해 첫 일출의 장관을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생생히 볼 수 있게 됐다고 28일 소개했다. 시와 협력해 매년 해맞이축전의 주요 행사를 실황 중계하고 있는 현대HCN 경북방송은 호미곶 축전을 찾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31일 밤 전야행사부터 새해 첫날 해맞이행사까지 전 과정을 채널 4번을 통해 생중계한다. 올해는 현대HCN의 무료 N스크린 TV서비스인 '에브리온TV'를 통해서도 동시 송출해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행사 실황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에브리온TV' 앱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어플만 다운로드 받으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메뉴에서 지역채널을 검색해 '현대HCN 경북방송'에 접속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에브리온TV' 앱은 지난 달까지 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생중계와 2014 연고전 생중계, 2015 S/S 서울패션위크 디자이너 전용채널 오픈 등 다양한 생중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호미곶해맞이축전은 소셜커머스에서도 인기다. 인터넷 쇼핑에서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 빅3 업체인 티켓몬스터(티몬)와 쿠팡, 위메프에서 호미곶 일출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소셜커머스에서는 제17회 호미곶한민족 해맞이축전을 상품화한 일출여행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티몬은 5개의 호

미곶 연계 상품들, 쿠팡은 6개의 상품들, 위메프는 5개의 상품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전세버스와 기차를 이용한 호미곶일출 단일패키지 상품과 함께 전국일출명소 패키지 상품 등으로 구성해 판매하고 있는데 호미곶과 죽도시장 연계상품과 포항유하를 연계한 이색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포항시축제위원회측은 "호미곶해맞이축전의 관광객 유치에 위해 모바일쇼핑의 대세가 되고 있는 이들 업체들에 행사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셜커머스에서 호미곶 일출여행 상품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가스공사, 시나오그룹과 MOU 체결

한·중 LNG 병커링 사업 공동 개발 추진 등 협력강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4일 중국 최대의 민간 가스회사인 시나오그룹(ENN)과 MOU를 체결했다. 서명식에는 가스공사 권영식 도입판매본부장, 시나오그룹 마 선위안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해양 수송연료로써 LN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중 LNG 병커링 사업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양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후 선박을 친환경 LNG연료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권영식 본부장은 "시나오

그룹은 LNG 병커링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LNG 도입 및 LNG 터미널 운영 분야에 많은 경험에 있다"며 "강점을 공유하면 양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나오그룹은 중국 100개 이상 도시, 6천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유럽, 북미에서 LNG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NG 병커링은 LNG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국의 환경규제와 맞물려 청정에너지 사용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LNG가 새로운 선박연료로 주목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벙커-C유가 점차 LNG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내표준 온라인 공개

표준규격 공개시스템 구축 민간이용 활성화 촉진 기대

한국가스공사는 29일 기자제 수급의 투명성 확보 및 천연가스관련 제품 기술수준향상

을 위해 사내포탈 전자조달시스템 내의 사내 표준을 공개했다. '정부 3.0'에 발맞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공개된 사내표준은 기자제 발주시 필요한 표준규격으로 '공통·생산·공급' 등 천연가스 3개 분야의 68종이며,

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내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사내규격의 온라인 공개가 기자제 제작사의 기술수준 향상 및 민간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사내표준의 온라인 검색·열람 및 다운로드 기능개선과 외부 의견수렴 등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우현 기자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함께하면 강력해집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함께의 힘 - NH 뉴스

NH NEWS

농어민 '삶의 질' 개선 위해 46조 원 투자

일자리와 안전 분야 지원 확대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5년간 46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자연재해·범죄·사고예방 대책 등 일자리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 정부는 29일 '삶의 질 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투자 규모를 2차 기본계획(34조 5000억 원) 때보다 35% 가량 증액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보건·복지 7조 2511

억 원 △교육 4158억 원 △정주생활기반 13조 9666억 원 △일자리·경제활동 3조 9859억 원 △문화 1조 7803억 원 △환경 6조 4470억 원 △안전 12조 6460억 원 등이다.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9곳의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 '6차산업화'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2019년까지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주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2019년까지 1500곳의 6차산업 사업자를 인증하고 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을 4.5%에서 9%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범죄, 안전사고 등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분야 투자

도 늘린다.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마을별 CCTV 설치율은 2014년 30%에서 2019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수리시설 정비율은 47%에서 62%로 높이는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60%에서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50개 읍·면 소재지를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로 육성하고 취약 지역의 주거 환경을 마을 단위로 종합 개선하기로 했다.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71%에서 82%까지 높이고 소형LPG 저장탱크(101개), 농촌형 교통모델(18곳) 등의 생활 체감형 인프라도

공급한다.

또 100MB급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까지 높이고 ICT를 기반으로 교육·문화·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농촌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교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국민연금 가입률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경영이양직불금, 농지연금 등을 개선해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학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마트러닝을 위한 ICT 기기 보급률을 48%에서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 5년 반만에 '1500원대' 경남 밀양, 휘발유 0당 1200원대 주유소 등장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5년 6개월 만에 0당 1500원대에 진입했다. 경남 밀양에서는 휘발유를 0당 12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91원 하락한 0당 1599.95원까지 떨어졌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0당 15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날 1일 0당 1705.98원에서 이날까지 0당 106원 정도 떨어졌다. 지난 11월 한 달 간 0당 43원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2배 이상이다.

경남 밀양에서는 12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다. 경남 밀양시 산내면 종남고속주유소(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8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0당 1250원에 판매하고 있다. 휘발유 12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2.4% 상승...전세가 4.3% ↑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3%, 매매가격은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43%로 지난해보다 2.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18% △5개광역시 3.62% △기타 지방 2.59% 등으로 전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8.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4.36%로 매매가격보다 크게 올랐지만 지난해 전세가 상승률(7.15%)보다 2.79%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5.41%나 뛰어올랐고, 5개광역시(3.28%)와 기타 지방(2.84%)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수요대비 전세물량이 부족해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 선물세트 미리 준비하세요"

홈플러스, 선물 예약판매 실시

홈플러스는 29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전국 140개 전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2015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 예약 판매 기간은 지난해 설(31일)보다 일주일 늘어난 38일이다. 취급 품목 역시 지난해(136종) 대비 50% 이상 늘었다. 50만 원 이상 구매 시 구매금액 5% 상당의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전 상품에 적용하고 상품 할인율도 지난 추석 대비 2배로 확대했다.

회사 측은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사전 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설과 추석 각각 7.2%, 8.8%에서 2014년 설과 추석 11.2%,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번 설에는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홈플러스가 준비한 사전 예약 판매 품목은 한우·과일·굴비·견과 등 신선식품 94종, 통조림·참기름·차 등 가공식품 77종, 삼푸·치약 등 위생용품 14종, 홍삼·오메가 등 건강식품 12종, 패션잡화 9종 등 총 206종이다.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 농협 안심한우 1등급 정육세트(9만 6000원), 명품 배세트(4만 8000원), 테스코 파인리스트 이태리 와인 H3호 세트(2병, 2만 6600원), CJ 한뿌리 백수오 세트(2만 8640원, 5+1) 등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구매한 상품은 내년 2월5~16일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배송되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는 무료다.

가구당 순자산 3.3억 미국·일본 절반 수준

우리나라 가계의 가구당 순자산이 약 3억 3000만 원으로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추정계'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2.69명) 순자산은 3억 2823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시장환율(1126.76원/달러)로 한국

가계의 가구당 순자산은 약 29만 1000달러로 미국(63만 달러)과 일본(61만 4000달러)의 46~47% 수준이었다.

또 호주(84만 3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5%, 캐나다(51만 달러)와 비교하면 57% 수준이었다.

구매력평가환율(PPP·860.25원/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은 약 38만 2000달러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졌다.

주요국들의 PPP환율 기준 순자산은 △미국 63만 달러 △호주 53만 5000달러 △일본 46만 9000달러 △캐나다 40만 9000달러 등

이었다.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순자산 기준으로 78%에 달해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비금융자산 비중이 39.6%에 불과했고 일본(46.5%), 캐나다(54%), 호주(75.9%) 등도 우리나라보다 비금융자산 비중이 낮았다.

우리나라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 기준으로 계산해도 65.9%에 달했다. 미국(33.4%), 일본(39.8%), 캐나다(42.7%), 호주(60.9%) 등보다 높은 수치다.

60대 이상 모바일 이용자 10명 중 9명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하루 평균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는 12.8회, 시간은 1시간 44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모바일 기기 이용자는 '10명 중 9명'이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한 달 전 전국 만 6세 이상의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6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은 하루 평균 12.8회, 1시간 44분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기기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 빈도와 시간이 12.7회, 1시간 36분으로 다른 모바일 기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 중 86.9%는 LTE로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4.4%p 증가한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정보 검색·웹서핑 등을 통한 자료와 정보 습득(99.0%), 메신저·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커뮤니케이션(97.5%), 게임·비디오·음악 감상 등 여가 활동(89.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99.1%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 모바일 기기 이용자 중 94%, 6~9세 모바일 기기 이용자 중 87.8%는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키보드 검색(99.5%)이 가장 많았으며 위치기반 검색(41.7%), 소셜 검색(24.8%) 등이 뒤따랐다.

모바일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는 가정(92.4%)과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8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향후 지향적력 내, 버스 정류장(70.3%),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57.5%)에서 무선랜 이용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자유학기제와 함께해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체험해 보세요
<http://forme.or.kr>

e-NIE

토론하고 소통해 봐요~ 수업이 정말 재미있어져요!

학생들의 열기 쓰기 말하기 능력 향상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개발
진로·직업 교육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꼭 맞는 디지털신문화교육, e-NIE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e-NIE를 지원합니다

- 자유학기제에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
- 고교학부별 진도별 다양한 수업지도안과 활동지 제공
- 학교에서도 집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

한국언론진흥재단
02-2001-7792-6, news@kpf.or.kr

대구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8

중구 남구 동구 수성



강대식 동구청장은 30일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 제공 협약식'에 참석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30일 구청 드림피아홀에서 개최되는 '2014년 남구자활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

수성구, CYS-Net 운영위원회

수성구는 29일 오전 10시에 수성구청 2층 회의실에서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CYS-Net(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경찰서, 수성구청, 동부교육지원청, 일시청소년쉼터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는 연계망이다.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등도 같이 활동 중이다.

한편 회의에선 지난 10월 구성된 1388 청소년지원단의 단장(황금종합사회복지관장 강기표)도 새로이 위촉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민간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회의 안건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심의와 CYS-Net의 활성화 및 연계망인 등이며, 특히 2015년도에 시·군·구로 확대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CYS-Net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경제적 어려움 겪는 공무원에 성금 전달

동구 읍부즈만, 200만 원 기부

동구 읍부즈만은 29일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청 소속 공무원 5명

에게 4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동구 읍부즈만은 대구의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7년 6월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23명의 읍부즈만이 구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시정과 주민 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등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22건을 제보해 현재까지 총 176건의 문제점을 제보·건의함으로써 구민 권익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자유현 기자



동구, 지역발전 로드맵 '완성'

조직개편 단행 '초읽기'

동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은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달라진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르면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 또 혁신도시 등 혁신도시 조성으로 늘어나는 각종 공원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과를 신설한

다. 인원이 적어 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였던 평생학습과와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통합하고 60명의 인원을 가진 세무과는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된다.

아울러 기존의 복지생활국 내에서 직제순서상 복지 뒤쪽에 있던 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일 앞에 뒀다. 일자리 창출담당을 주무 담당으로 하면서 사회적경제담당을 따로 뒀다. 일자리와 경제관련 업무의 비중과 역할을 대폭 높였다.

북지를 우선으로 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동

구청은 경제를 앞에 두는 직제 개편을 단행해 눈길을 끈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동구는 혁신도시, 첨단 의료복합단지, 이시아폴리스,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의 각종 국·시책 사업들이 준공 내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의 발동기 역할을 하고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인 본인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자유현 기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시·군지역자활센터 '직장인 나눔캠페인' 동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단법인 경북도지역자활센터협회와 도내 시·군지역자활센터 15곳이 '직장인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직장인 나눔캠페인'에서 도내 단체 16곳의 동시가입은 최하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도지역자활센터협회는 29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경북도지역자활센터협회와 시·군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직원 127명이 매달 급여의 일부를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자활센터의 기부 동참은 '직장인 나눔캠페인'을 안내 받은 황천호 회장과 손찬혁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경북도 지역자활센터협회와 도내 20개 지역자활센터 중 15곳이 참여사를 밝혔다.

황천호 경북도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기부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소외이웃 지원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크고 작은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누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평소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한 경북도지역자활센터협회의 기부동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학교급식센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aT, 모든 단계 전산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형을 분석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했다.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은 식재료 계약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전산화했다.

전자계약방식으로 학교와 급식지원센터간 서류제출의 불편함 해소 및 계약 간소화 등의 행정절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상호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 정산데이터를 통해 산출되는 집계통계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지방자

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은 첫째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관리 시스템을 탑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입·출고 매입·매출관리까지 지원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둘째로 이력추적 기능을 개발해 식재료의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셋째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와 연계돼 있는 각종 식품 안전관련 정보를 연계해 친환경 인증정보, 축산물 HACCP 지정 정보 데이터, 원산지 단속 행정처분 정보 등 지원센터의 안전성 관리가 수월해진다. 자유현 기자

원예농산물 자조금 워크숍 aT, 개선방향-해의 사례 공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의 'The-K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단체, 관계기관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원예농산물 자조금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1부는 자조금 정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인 ①자조금제도 기반 정비방안 ②자조금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③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강화 방안이 자세하게 설명됐다. 또 이를 반영한 2015년 원예농산물 자조금 사업 지침(안)에 대한 발표가 뒤를 이었다.

2부에선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방안 후속대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함께 추진 중인 자조금 법령개정안 마련과 자조금 사업 가이드라인 제작, 통계체계 구축과 관련해 자조금 단체 관계자들과 진행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자조금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자조금 해의 사례에 대한 강의를 개최해 자조금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워크숍에선 자조금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자유현 기자

대구 남구청 인사

〈직무대리〉 5급 △보건행정과장 이기희 △의회전문위원 전종기 △이천동장 박승중 △대명1동장 이창호 △대명6동장 김진하 △대명10동장 박명희
〈승진〉 6급 △북지지원과 이동필 △녹색환경과 최강현 △안전총괄과 김성룡 7급 △교통과 정영태 △행정지원과 김병락 임효신 △대명5동 조경희 △대명9동 김정화 8급 △대명2동 이승민 △대명3동 이경남 △대명5동 신민정
〈전보〉 5급 △주민생활과장 사공태 △생활보장과장 김혜숙 △행정지원과장 유환동 △시정경제과장 정학재 △대명4동장 김기영 6급 △기획조

정실 김연달 △주민생활과 고재광 이문기 △복지지원과 나옥선 김영식 김영오 함보경 △생활보장과 이종태 장경영 전순옥 △녹색환경과 황대연 △도시재생총괄과 김우숙 박철기 △건설방재과 최병원 △교통과 김상일 이승민 △행정지원과 오정석 김선옥 △안전총괄과 이성원 이태식 △문화홍보과 서정택 김용순 김근태 △민원정보과 김성해 이정원 △시정경제과 김동현 △보건소 김종우 △대덕문화전당 김병철 △의회사무과 이택우 최창호 △이천동 최정은 △분덕1동 강인수 △분덕2동 임재명 △대명1동 이현영 △대명2동 안대규 김혜숙 △대명3동 이훈 김중식 △대명4동 이선기 △대명5동 이재천 박진희 △

대명6동 박면근 △대명9동 신상훈 △대명10동 남후자 △대명11동 양승구 이종기 7급 △기획조정실 박동욱 조경진 △주민생활과 강재국 △복지지원과 공희경 김경아 △녹색환경과 장정호 △건축과 심상욱 △건설방재과 정연오 김삼식 △행정지원과 김대호 △문화홍보과 한상욱 이경호 △시정경제과 노성동 △의회사무과 예상호 △분덕2동 장경희 △대명1동 정지윤 △대명10동 성명희 △대명11동 김예연 8급 △주민생활과 장현희 △생활보장과 이선영 △교통과 권태영 △보건소 김창룡 △대덕문화전당 김윤경 △이천동 김효정 △분덕1동 송정숙 9급 △생활보장과 은주영

〈전직〉 7급 △위생과 정연철 배창국 △도시재생총괄과 박은숙 △건설방재과 장운배 △교통과 이주석 △시정경제과 정명찬 △대덕문화전당 손영태 △의회사무과 이종규
〈전입〉 7급 △도시재생총괄과 이승민
〈신규임용〉 7급 △녹색환경과 박성혁 9급 △기획조정실 박은경 △복지지원과 서충희 양유정 △생활보장과 박기은 △위생과 도순원 △도시재생총괄과 서승희 △건설방재과 서주영 임대섭 △교통과 이승희 송정은 △도시정보과 황규희 △행정지원과 백종진 △문화홍보과 이정아 △민원정보과 이정화 △대덕문화전당 장희진 △대명10동 김민정

Reader(리더)가 Leader(리더)가 됩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하루를 신문 읽기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고 정주영 회장은 자신을 '신문대하' 출신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고 특유의 창의력과 결단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신문은 그를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 냈습니다.
신문 읽기 습관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웁니다. 미래를 읽는 혜안을 만들어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대구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9

북구 서구 달서 달성



배광식 북구청장은 30일 오후 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및 4/4분기 직무교육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9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대구달서소방서

대구달서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성서공단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각 사업장의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재 또는 누출 사고시 초기대응방법 등에 대해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대구달서소방서 박희욱 서장은 "최근 성서공단 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종관 기자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활동성과 보고회 열려

지난 26일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비산1동 추진위원회(박은희 위원장)는 북비산초등학교에서 2014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활동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관내 기관단체 및 경로당 회원, 일반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보고, 축하공연(퓨전댄스, 라인댄스, 태권무, 날뽀북춤, 색소폰연주)과 다과 및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송종관 기자

성서5차발전협의회, 성금 500만 원 전달

지역기업으로 지역사회 이익 환원

성서5차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연말총회를 열어 회원들이 모은 성금 500만 원을 달성군에 전달했다.

이익재 회장은 "지역 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행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

다"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김문오 군수는 "항상 변함 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하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전달할 계획이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달성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식 기자



북구청, 정부합동평가 우수상 쾌거!

대구 구·군 중 우수상 수상
재정인센티브 1억6천만 원
행정 전 분야에서 우수 평가

북구청이 안전행정부 주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대구시 8개 구·군 중 우수구로 선정돼 1억6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16개 시·도에서 지난해 수행한 국

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 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을 평가한 것으로 온라인평가와 현지검증, 합동실적 검증, 고객 체감도 조사 등을 평가했다.

대구시에선 구·군의 관심도 제고와 실적향상을 위해 9개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해 정부시책에 기여한 실적 등을 종합평가, 우수 구·군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북구청은 9개 분야 중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특히 보건위생, 환경산림 분

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용덕 기획홍보실장은 "정부합동평가는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업무수행과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900여 명의 북구 전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차별화된 우수시책 발굴과 주민행복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달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회 열려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 24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425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모시고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의 힘찬 발걸음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김문오 군수를 비롯해 চে임자 군의회 의장, 김병용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유호중 대구시니어클럽회장, 김일규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915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사업별로 공익형(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사업, 스텝지원사업)에 314명, 시장형(여울림공공작업장, 은빛공동작업장, 달성버블플라워사업, 마비정점방사업)에 101명, 달성군 특화사업인 경로당 일거리장출사업에 500여 명이 참여했다.

김영식 기자

서구청,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구시 구·군 평가 우수기관

주민자치공모사업
주민특화사업 추진

서구청은 '201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구·군에 대해 인센티

브를 주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구·군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지원 서면평가와 주민자치센터 현장 평가를 함께 실시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위원회가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했다.

서구청은 열악한 지역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2014년 주민자치공모사업과 주민자치특화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호식 안전행정과장은 "이번 수상으로 주민자치기능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됐다"며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2014년 국민운동추진상황평가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바 있다.

송종관 기자



새해 첫날 와룡산 상리봉서 해맞이 하세요

서구민 안녕과 화합 기원
2015 해맞이 축제 열려

서구청은 새해 첫날 오전 7시 서구 와룡산 해맞이동산에서 '2015 해맞이 축제'를 갖는다.

이날 해맞이 행사는 올미년 첫날 일출을 보면서 구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류한국 서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장과 구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 7시 식전행사로 천왕메기의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공연, 인간도 중장단의 새희망 새출발을 기원하는 성악공연이 준비됐다. 이어 7시 20분 신년메시지 전달에 이

어 새해 첫 해가 떠오르면 일출감상 및 문화공연행사가 열린다. 또한 구민들의 한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작성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마친 후, 계성고등학교 신축부지 정문에선 서구 문화원과 서구 새마을회가 준비한 떡국나눔 행사도 열린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나해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해였지만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해맞이 행사를 위해 먼 곳으로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우리지역인 와룡산에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동인지하차도 왕복 6차선 우선 개통

30일, 남북교통 개선 기대 돼
연이은 철도변 지하차도 개통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 구간 건설사업으로 시행한 동인지하차도(신양로)를 30일 우선 개통한다.

동인네거리에서 철성교네거리를 남북간 연결하는 동인지하차도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시행됐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 사업비 95억 원을 지원받

아 2009년 6월에 착공했다.

동인지하차도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차로로 축소 운영 중인 도로를 30일에 왕복 6차선으로 확장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측면도로 등 부대사업은 2015년 4월 완료한다.

대구시 안전민간 건설본부장은 "앞으로 남은 지하차도 확장공사도 안전하게 조속히 완료해 시민불편 해소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1525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북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열람공고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14년 12월 30일 ~ 2015년 1월 28일(토·공휴일 제외 20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과 ☎665-2833)
3. 도시관리계획(안)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조사

구분	시 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폭(m)	면적(m ²)	
변경	소로3-211	팔달동 대로1-9~팔달동 신13-3	12	60	신형변경
변경	소로3-70	팔달동 149-1~팔달동 신13-4	6~7	304	신형변경
변경	소로1-칠20	동호동 395-4~동호동 296	10	305~309	노선연장
변경	소로3-북F	동호동 393-4~동호동 453	6	412~416	노선연장
폐지	소로3-보1	동호동 549-1~동호동 549-1	4	40~0	노선폐지
변경	소로2-16	태전동 553~태전동 475-1	8	103~149	신형변경 등
변경	소로2-칠13	태전동 555-2~태전동 475-2	8	94~80	노선축소
변경	소로2-칠9	태전동 855-3~태전동 501-1	8	380~312	노선축소
변경	소로2-18	금호동 222-2~금호동 158	8	460~457	신형변경 등
폐지	소로2-22	매천동 671~매천동 181	8	95~0	노선폐지
변경	소로2-29	매천동 312~매천동 447-1	8	142~90	노선축소
변경	소로2-35	매천동 529-2~매천동 473-2	8	208~158	노선축소
변경	소로3-55, 56	팔달동 4-1~매천동 484-1	6	747~411	노선축소 등
변경	소로2-북7	침산동 1552-2~침산동 1323	8~8-9	728~610	신형변경 등
폐지	소로2-북18	고성동3가 5-92~고성동3가 5-86	8	36~0	노선폐지
변경	소로2-칠170	태전동 252-2~태전동 398	8	530~441	신형변경 등
폐지	소로3-칠85	태전동 77-1~태전동 77-2	6	70~0	노선폐지
변경	소로3-26	구암동 502-4~구암동 524-3	6	216~41	노선축소
변경	소로3-83	서변동 840~서변동 신59-2	6	93	도로모양이변경
변경	소로3-84	서변동 880-2~서변동 859	6	102~86	신형변경 등
폐지	소로3-85	서변동 860-2~서변동 신58	6	92~0	노선폐지
변경	소로3-86	서변동 854~서변동 861	6	140~63	노선축소
변경	소로3-북96	산격동 1438~산격동 1427-57	6	228~228	신형변경 등
변경	소로3-북93	산격동 1154-16~산격동 신89-2	6	224~221	신형변경
변경	국도4호선 변경지	중로1-109호선~팔달동 변경지	A=792m ² ~756m ²		면적축소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사 : 중로2-북토1호선 외 241개 노선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2014. 12. 30.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전기안전을 실천하는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약속입니다!

전기안전은 실천하는 것만으로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 전기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KEEPCO 한국전력

경북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10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열리는 '2014 포항구룡포 과매기 겨울바다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30일 공직기강 확립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경북도 평생교육 시군 평가 포항 '우수상' 수상

포항시가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평가는 평생학습조례 제정,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기구 운영,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장의 관심도 등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포항시는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하면서 그 동안의 노력을 결실을 맺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학습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읍면동 평생학습, 시민교양대학 개최,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일일 아카데미,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평생교육 전문직(평생교육사) 채용,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다.

포항시 박정숙 새마을봉사과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포항시 평생학습원 건립과 국 단위 평생학습 전담조직 등을 통해 53만 시민들의 높은 평생학습 참여율에 걸맞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학습도시를 만들어 경북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기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집수환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포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영일만 친구' 심의회 개최

포항시가 29일 소회의실에서 '2014년 제2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인 '영일만 친구'상표사용 신규지정과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법정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상표사용 신청자에 대한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의 현지방문 및 현물심사를 실시한 결과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플레인 요구르트를 출품한 '기북농촌체험 영농조합법인'과 유기농산물로 인증된 블루베리를 음료로 가공해 출품한 '포항블루베리 농원' 등 2개 업체가 신규 지정됐다.



이원기 기자

영덕 특별교부세 12억 원 확보

지역 현안사업 해결 풍력길 위험도로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등 박차

영덕군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선 6기 이희진 영덕군수가 취임한 이래 영덕군은 열악한 군 재정 해결을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얻은 성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확보한 7억 원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산림생태문화체험공

원, 국립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풍력단지 등에 7번 국도에서 최단 연결된 영덕풍력길의 도로 개선 사업 본격적인 공사 시작에 큰 도움이 됐다.

영덕 풍력길은 노폭협소, 선형불량으로 학생수송 및 관광객 버스운행도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5억 원의 예산은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쓰이게 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군 전 지역으로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로하스 영덕 이미지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앞당기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수시로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해 지역현안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신라문학대상 개최



소설-박은후·시-박용우
수필-전영임·시조-김선영

제26회 신라문학대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경주 The-K 호텔에서 최양식 경주시장, 이진락 도의원, 한순희 시의원, 신라문학대상 위원, 경주문인협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소설부문은 경남 합천군 박은후(58)씨가, 시부문은 경남 김해시 박용우(45)씨가, 수필부문은 영주시 전영임(49)씨가, 시조부문은 전남 담양군 김선영(46)씨가 각각 수상을 했다.

신라문학대상 위원장인 최양식 경주시장은 축사에서 "신라문학대상은 올해로 스물여섯번째 문학인재를 배출하게 되었다"며 "한국문단의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설부문 당선작인 박은후씨의 '틸란시아에 길들이기'는 해외 이민자들의 애환과 삶의 무늬를 섬세하고 절실하게 그려나간 작품이다. '틸란시아'는 흙이 아니라 공기 중에 생장하는 특이한 식물로 케냐

다 영주권자로 오랜 시간 해외 이민자의 생활을 한 박 씨의 경험을 작품에 오롯이 담아냈다. 박 씨는 "주저함이 없이 소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심사위원들과 경주시에 감사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심사는 정종명, 서동훈, 유익서씨가 맡았다.

시부문 당선작인 박용우씨의 '움직이는 마애석불'은 경주남산에 있는 마애석불을 주제로 쓴 시로 역사를 바라보는 예리한 눈과 치열한 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박 씨는 "시를 쓰는 작업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는 일이다"며 "더 탄탄한 집을 지으려는 채찍으로 알고 정진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심사는 김종해, 신규호, 허형만씨가 맡았다.

수필부문 당선작인 전영임씨의 '갈목비'는 소재가 매우 참신하고 화자의 중심 사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보잘것없는 빗자루에 가난한 아버지의 정성과 공이 들어 있는 예술품으로 우정과 가족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씨는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진솔한 삶을 이야기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며 "글을 쓰는 그 순간은 지친 삶도 잊게 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심사는 도창희, 구활씨가 맡았다. 시조부문 당선작인 김선영씨의 '마음의 서랍'은 시적 향기를 뿜는 풍기는 제목에 걸맞게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한 목소리로 풀어간 서정이 빼어난 작품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윤용찬 기자

동계훈련 최적지 포항 떠오른다!



국·내외적 동계훈련·대회 열기

추운날씨를 이겨내고 시즌동안 지쳤던 정신과 육체를 재충전하여 기본적 기술과 전술을 다듬어 새 시즌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맞이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계훈련과 성과를 확인하는 대회가 포항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2014 포항 U-15 및 한·일 축구 U-18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내년 초 여자 축구 동계훈련, 중학교 야구 동계대회 등 여러 종목의 스

포츠 동계훈련 대회가 포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비수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벌어진 한·일 축구 U-18 스토브리그는 포항양덕스포츠타운에서 일본의 오사카 세레소 U-18, 오츠 고교, 산프레체 히로시마고 1·2팀과 포항 스틸러스 U-18, 대구 FC U-18, 상주 상무 U-18 1·2진팀 등 6개팀 250여 명이 어울려 훈련과 경기를 병행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며 더불어 친선도모로 외교적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 포항양덕스포츠타운에서 벌어지는 여자고등부 축구는 강원 강일여고, 서울 동산고 등 고등부 4개팀이 먼저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내년 2월경 강원도립대 등 대학부 등 13개팀 300여 명이 오전에는 연습경기, 오후에는 전술훈련, 저녁에는 경기분석 등으로 혹한의 어려움을 이기고 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철호 기자

희망찬 을미년 영덕서 함께 소원 빌어요!



공연과 볼거리 '다채' 흥겨운 새해맞이 준비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동해안최고의 해맞이 명소인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경북대중의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영덕군은 오는 31일과 2015년 을미년 1월 1일 이틀간 삼사해상공원 일원에서 제야의 경복대중 타종과 2015 영덕 해맞이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2015 영덕 해맞이축제는 '칠백년경북의 소리! 천년을 향한 영덕의 빛으로!'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다.

이는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처음으로 경상도로 불린 700년의 역사와 2015년 신

도청 시대의 원년 동해 일출의 서광이 천년을 향한 웅도 경북을 영덕에서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덕군은 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일출을 보기 위해 영덕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의미 있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전야행사로 31일 오후 5시부터 을미년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영해별신굿 놀이와 영덕의 전통문화인 월월이청청 공연이 펼쳐진다. 이후 오후 8시에는 삼사해상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특히 김수희, 현숙, 박주희, 마야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송년 음악회는 올해 마지막 날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건 기자

방귀도 없습니다
바람이 알려줍니다

Safe to safe enough!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준공 완료!

안전 그 이상의 운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29년간의 시간을 소중히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방폐물 관리사업이 시작되고 사용승인이 나기까지 29년
그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안전한 방폐장을 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실천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전반기관이 7차례 검증한
세계 최고 수준의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입니다.

미래세대의 안전과 국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세계 최고의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11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영석 영천시장은 30일 오전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청소, 빨래개기, 담소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영천시 12월 할매·할배의 날 경로당 결연사업추진 나서

영천시는 12월 할매·할배의 날을 맞이하여 손주와 조부모님 간의 만남과 사raz져 가는 효(孝)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7일 아사주공4차경로당에서 영천시, 아사주공4차경로당, 참빛어린이집과 결연식을 맺었다.

이날 결연식은 결연사업 취지설명 및 증서 교환등 경로당회 및 보육시설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 참빛어린이집은 매월 1회 정도 원생들이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했으며, 아사주공4차경로당도 원생들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영천시 조명재 사회복지과장은 "이날 결연식을 계기로 사라져 가는 효문화 확산을 위해 경로당과 학교 등 간의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할매·할배의 날을 우리지역에 정착 시키고 전국으로 확산돼 격대문화의 발상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칠곡,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

칠곡군은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2014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 재난발생 시 자율 및 책임행동 강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인역량, 재난관리부서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등 70개 지표에 대해 평가됐다.

안성민 기자

청도, 일자리창출 추진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이 경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4년 하반기 일자리창출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일자리창출 평가는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 실적, 좋은 일자리창출 노력도, 자치단체장 관심도, 일자리 취업지원 실적, 지역 일자리 시책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청도군은 '용암온천관광지 리조트 건립 투자유치 제안과 감소기업 유치' 등 투자유치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일터-배움터-살터' 연계의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로 폭넓은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강용규 기자



성주의 미래! 보육인이 책임진다 어린이집연합 교직원 연수대회

'2014년 어린이집연합 교직원 연수대회'가 27일 성주문화예술회관 3층 소강당에서 성주관내 어린이집 교직원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내용으로는 1부에는 한혜 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무궁화어린이집원장 김학순, 창천어린이집 조리사 박경화, 청운어린이집 교사 박혜선, 수련엘리스어린이집원장 배준호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를 초청해 '공감유아교육의 실제'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고, 오후 2부 행사에는 축하공연, 장기자랑 경품 추첨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100여 명의 교직원들은 '성주의 미래! 보육인이 책임지겠습니다!'란 주제 아래 하나로 단합 됐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리라는 다짐하는 하루가 됐다.

김두상 기자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사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진흥원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지원사업에 경일대학교의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각 권역별 2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영남권에서는 경일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함께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일대학교는 '문화예술의 나눔과 소통 체험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대구와 경산소재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한 달간 주 3회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과 본교 캠퍼스에서 동시에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1월3일 까지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053-600-4352)으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신경은 기자

경산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시민들 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산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결실로 지적돼 온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해제 고시돼 2015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로인해 전체면적 62.94㎢중 하양·진량읍·자인·압량면·동부·서부·북부·중방동지역 43개마을 42.92㎢지역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돼 제조업 신규설립 등의 개발

사업 투자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사유권 침해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경산시가 환경부를 방문해 오목천 수계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정의 불합리함과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도움 요청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난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지난 8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이어 12월 24일에는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고시문 관보게제 요청으로 확정됐다.

경산시는 지정해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통해 지자체간 협의도 이끌어 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내 개발요지 42.92㎢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경은 기자

성주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준공

서부지역 농업인 숙원사업 해결 30일 수련면서 준공식 행사 열어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해 성주군 서부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준공식'이 30일 수련면에서 개최됐다.

성주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 5월 6일부터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임대사업소에서 시작했으며 2008년 임대일수 359일, 임대농기계 302대, 임대료 1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지난해(2013년)에는 임대일수 925일, 임대농기계 762대, 임대료 2300만 원의 실적을 올려 매년 임대수익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성주군의 서부지역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구입 비용과 고장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신축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2013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경북도청을 수차례 방문해 건의했고 그 해 7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으며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7억 1000만 원

총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투입했다.

임대장비 구입은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기중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서 반전집초기 등 42종 97대, 관리장비는 지게차, 천정 호이스트기, 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기 등 최신식 관리장비 5종 42대를 확보해 총 47종 139대를 보유했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는 국도 30호선을 인접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해 서부지역 수련면, 가천면, 금수면의 중심지인 수련면 수성리에 자리하고있어 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대여하기는 불편을 덜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물류비용, 시간절약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성주군은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두상 기자

고령 우곡면을 건강마을로 만든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평가대회

고령군은 지난 26일 우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광용한 고령군수, 이달호 고령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우곡면 기관단체장, 우곡면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군 우곡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평가대회' 행사를 추진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3년간 표준화사업과 5년간 건강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들어진 읍면별 건강지도도를 바탕으로, 가장 건강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건강향평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주민 건강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정부

3.0 브랜드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령군은 8개 읍면중 건강취약지역 2순위인 우곡면을 선정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는 1차년도로서 지역주민의 취약한 건강문제를 중점으로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식사 후 양치질 습관가지기', '저염식 식습관형성', '우울감 해소를 위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했고, 지역주민 스스로 걷기동호회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 행사에서 신동우 우곡면 건강위원장과 광용한 고령군수는 2015년은 우곡면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야 함을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강조했다.



고령군은 2016년까지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을 민(우곡면주민)·관(고령군보건소)이 협동해 알차게 추진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노력하는 결과가 쌓이면 우곡면이 고령군에서 가장 건강한 마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기자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그리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우리밀!!

우리밀 1석3조의 좋은 점!



건강한 밥상·행복한 세상
우리밀이 만들어갑니다

우식농산

재배에서 식탁까지

생산물품: 밀가루, 국수, 보리쌀, 밀쌀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한 힘쓰시는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정원료 우리밀 이용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해 주정원료에 우리밀 이용을 크게 늘려주신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관계 회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지방의 수입 원료를 대신한 우리밀 주정원료 3만톤 약속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입니다.
- 주정원료 우리밀 이용에 큰 힘을 보태주신 농림수산식품부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2013년 군급식에 우리밀이 쓰여집니다.

2013년부터 군인정령 식민에도 우리밀이 공급됩니다. 국민들의 우리밀 이용을 위한 적극적지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국회의원님들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에 보다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밀 소비확대의 최고와 깊은 식음료업계와 외식산업계가 원료가격 부담없이 우리밀 선적이 가능토록 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우리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제 식량안보용 곡작형 직불제를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용기공업체는 가격부담없이 우리밀 원료산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 식량안보용 곡작형 직불제는 WTO 허용 보조이며, 이웃 일본도 유사제도를 통해 자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12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영양



장욱현 영주시장은 30일 오전 동양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사과발전연구회 재배기술 교육 및 연말총회'에 참석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30일 오전 갈평1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갈평 1리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30일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명예퇴직공무원에게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다.

영주, 한 해 흘린 땀 결실 맺어 지역산업정책 대상 등 48개 수상

영주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경북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총 48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앞장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제11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을 비롯해 48개 부문에서 각종 상을 수상, 사업비 6000만 원과 시상금 4900만 원을 받았다.

시상 주체별로는 중앙부처 주관에서 제11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종합대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장관표창' 등 11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외부기관 주관으로는 2014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지방자치부문)을 수상하는 등 10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외에도 경북도의 시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 '우수상',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등 27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다.

급년 수상 내역을 보면, 일자리·투자유치 등 경제분야가 (11)건, 농업분야가 (12)건으로 전체 48건 중 (2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11만 시민의 협조와 성원으로 영주시 공무원이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면서 "2015년에도 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자유치와 창업지원 등 일자리가 있는 영주, 살맛나는 희망주는 부자농촌 건설, 힐링 관광의 도시 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성기 기자

문경, 벼 재배농가 지원금 11억3천만 원 지원

문경시는 지역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 한해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총 11억 3200만 원(26만 원/ha)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지원금은 전국적인 쌀 생산량 감소와 쌀값하락, 생산비 증가 등 실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경시 관내 4506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요건은 문경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의 수입이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과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하며, 특별지원금은 지난해보다 3만 원 증가한 ha당 26만 원을 지급한다.



오재영 기자

예천, 살기 좋은 열린 군정 실현

2014년 42개 분야 수상 부자농촌·복지 강화 매진

예천군은 중앙 및 도 단위 42개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펼친 한 해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지난 해 31개 분야 수상으로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훨씬 웃돌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

관과 2014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중앙단위 수상은 2014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등 12개 부문, 도 단위 수상내역은 농정평가 대상 4년 연속수상,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13년 연속 우수기관 등 27개 부문,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010년부터 5년간 3회 수상 등 3개 부문 총 42개 분야 수상으로 사업비 7억 원과 시상금 5240만 원을 받았다. 특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살맛나는 부

자농촌 건설과 소통을 통한 화합 행정 강화로 활기찬 지역개발은 물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에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경북의 새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1063억 원이 투입되는 도청신도시와 예천읍간 직통도로개설,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1380억 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1155억 원,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23억 원, 293억 원이 투자되는 제2농공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초석을 다졌다.

먼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한천교-우계삼거리간 도로, 대신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로 도로 교통망을 구축했으며 순환형 매립장 가동과 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또 21세기 농업의 신 블루오션인 곤충산업을 소득과 연계되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호박벌 특화센터 준공, 꿀벌유전자원 보존소 지정,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동굴곤충체험관 조성 등 명실공히 산업군총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산과 강,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황원식 기자

“수려한 자연경관 즐기며 썰매 타자!”

영양, 무료빙상장 개장 가족단위 명소 자리매김

전국 최고품질의 천연 빙상장인 영양 무료빙상장이 지난 26일 개장했다.

영양 무료빙상장은 일월산에서 발원하는 반변천의 수려한 자연이 그대로 묻어나는 천연빙상장으로서 빙질이 우수하며 얇은 수심으로 안전성도 높아 겨울철 가족단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양 빙상장은 무료로 스케이트(피겨, 스피드스케이팅)를 대여해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를 위한 얼음열차와 썰매, 얼음팽이치기 등 다양한 놀이뿐 아니라 쫄쫄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휴게실도 준비돼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 및 휴일은 오후 5시까지로 2015년 2월 8일까지 운영한다.

또 영양군생활체육회 직원들이 상주해 빙상장 및 빙상용품 점검하고, 사고예방 활동 등을 펼치고 있어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윤동 기자



안동호 수위저하·결빙 승선객 안전 위해 30일부터 차량도선 운항중지·단축운항

안동호 수위가 낮아지고 결빙으로 차량도선 운항이 불가능함에 따라 선박과 승선객 안전을 위해 30일부터 '차량도선' 운항중지와 '희망의 콜배' 운항 중인 도선을 단축 운항한다.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은 도산면 동부리-에

안면 부포리 간을 운항하는 차량도선 경북 제 706호이며, 도선 경북 제705호는 도산면 서부리-에안면 부포리 간에 '희망의콜배'로 운항 가능한 도산면 서부리-에안면 천전리 간을 단축 운항할 계획이다.

수운관리사무소관계자는 "이 구간 도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결빙으로 인한 도선 운항 중지 등을 확인하고, 주진교 방면 우회도로 이용을 부탁하며, 해빙 시 선박운항이 가능하면 즉시 운항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규기자

‘농악’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옛길박물관 유물 농기 전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옛길박물관은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농기(農旗)를 전시했다.

농기는 농촌에서 한 마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기(旗)로서 서낭기, 용기(龍旗)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거나 두렛일을 할 때 세워두기도 하고 풍물을 칠 때 농기를 앞세우기도 한다.

농기에는 '神農遺業(신농유업)', '黃帝神農氏遺業(황제신농씨유업)',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 등의 글씨를 쓰기도 하고 용을 그려 넣기도 한다.

농기는 마을의 상징으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이 농기는 문경시 마성면 신현 1리 주민들이 2013년에 돌고개 성황당 상량문과 함께 기증한 것으로 실제 마을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농기의 특징은 중앙에 '農天下之大本'(농천하지대본)이 적혀 있고, 다른 지역의 농기와는 달리 태극기가 들어가 있고, 왼쪽 하단부에 '隆熙二年三月二日'(1908년 3월 2일)이 명기돼 있어 제작연도가 1908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오른쪽 하단부에 '麻城面長'(마성면장)이



라는 글씨와 직인이 찍혀 있다. 1916년 행정개편 때 마고성면이 마성면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이 글씨는 1916년 이후 덧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오재영 기자

예천, 동절기 대비 철저 상수도계량기 파손 대처 만전

예천군은 동절기 수도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없애고 상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환경관리과와 예천수도관리단에 상 황실과 상수도 동파 긴급복구반을 구성해 동 파대비 월동 장비를 확보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상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부터 보호 요령, 동파 시 응급조치 요령 등 군민들이 알기 쉽

게 예천소식지에 게재해 각 가정에 배부하고, 마을단위 엠브방송 등을 활용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 상수도계량기 파손에 따른 교체비용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내부에는 현 의류나 이불 등으로 감싸서 보온을 유지하고 아파트 계단 창문은 닫아서 찬바람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보온관리에 신경을 써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동파가 우려되는 수도꼭지는 전기 열선을 감거나 조금씩 물을 흐르게 하고 계량기가 얼면 계량기에 수건을 감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원식 기자

고향상품 직거래로 좋은 제품 믿고 사세요

http://www.andongjang.com

사이버안동장터로 오세요.

사이버 안동장터 인터넷 주소 : <http://andongjang.com>
문의전화 : 080-501-0501, 054-853-5088 팩스 : 054-841-5377

안동장터 AndongZangtor

사이버 안동장터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특산물을 산지가로 직거래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안동시에서 운영합니다.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13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청송



김영만 군위군수는 30일 군위새마을금고 2층에서 개최하는 군위읍면영회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여성 리더십 강화 교육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구미, 2013회계연도 지방 재정 운영 '최우수' 등급

구미시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입 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에 적극 나선 결과 244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표창 및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고 3개분야(건설성, 효율성, 재정운용능력) 25개 지표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분석,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재정전문가·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구미시의 성적을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9개 지표를 분석하는 재정건전성분야에서는 평균정도인 '다' 등급을 받았지만 자체수입 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등 6개 지표를 분석하는 재정효율성분야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 등 10개 지표를 분석하는 재정운용능력분야에서도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에서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전국 16개 우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북도가 선정됐으며 경북시군자치단체에서는 구미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김기환 기자

상주보건소 저출산극복사업 최우수기관상 수상

상주시 보건소가 지난 23일 경북도에서 주관한 2014년 저출산극복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상주보건소는 민관협력단체와 지역신문,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홍보 활동과 미래세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포스터 공모전개최, 가족인형극공연, 경북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장

려 연극공연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사 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 보건소내 모유수유실과 기저귀갈이대 설치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펼쳐온 결과 이번에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오재영 기자



의성, 광역상수도 공급 토대 마련

의성·안동광역상수도 2단계 완료

의성군은 광역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단촌면 및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봉양면 일부 등에 안동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의성·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2단계)을 완료했다.

군은 2009년 5월부터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단촌통합배수지를 시점으로 안동방면 단촌·점곡·옥산면과 의성읍, 사곡·봉양면에 송·배수관로 68Km를 설치하고 옥산배수지, 송·배수가압장 4개소 등의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구미 목어리 머들 체험마을 썰매장 개장

즐길거리 먹거리 놀거리 추억의 장소로 인기 높아

구미시 장천면은 박태병 장천면장, 목어리 박동철 이장을 비롯한 부녀회 등 주민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26일 목어리 머들 체험마을 썰매장을 개장했다.

이 썰매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놀거리를 갖춘 추억의 얼음 썰매장이다.

또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 장천면사무소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25번 국도에 인접해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최근 며칠전부터 추운날씨가 지속되면서 눈썰매장에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몰려들어 추운날씨에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한가득 피어올랐다.

얼음썰매는 스키와는 달리 특별한 기술 없이도 남녀노소가 다 탈 수 있고 안전사고 위

험이 적으며, 안전요원 배치돼 있으며 겨울철 레포츠로서 인기가 높다.

더욱이 눈에 물을 가두어 주민들이 직접 꾸민 썰매장은 어른들도 추억속의 동심으로 돌아가 시승에 나섰다.

썰매장 주변 하우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어 정성스레 만든 국내산 두부, 오뎅 군고구마, 국수, 파전 등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또한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이 항상 대기중이다. 목어리 썰매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심한 준비를 마쳤다.

박태병 면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활기찬 동네 분위기를 만들어 감동받았으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썰매장 안전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전했다.

김기환 기자

청송 이상오 문화관광과장, 대통령 표창

국가문화발전 유공 공무원 선정

이상오 청송군 문화관광과장(사진)이 '국가문화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 과장은 청송군 문화관광산업책임관으로 문화관광업주 전반을 지휘 감독해 문화산업과 문화재관리, 관광개발, 지역축제 개최 및 육성, 객주문화관광패마타온 조성 등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지난 11월에 열린 '2014 청송사과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객주문화관 조성을 지휘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추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과장은 항상 온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두터고 조직 상하간에 소통의 문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장은 "부족함이 많은 제가 상을 받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주민들과 공직자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맑은 분야에서 말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이 영광을 함께 일해 온 동료 공직자



과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청송군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청송군의 문화와 관광가치를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31일 11시 청송군청 제 1회의실에서 열리는 종무식에서 한동수 군수가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상을 전수한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상오 문화관광과장이 국가문화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권오근 문화관광과 축제담당이 지역축제 발전 기여로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을, 심순희 안전행정과 주무관이 안전사회 만들기 공로로 역시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을 수여받는다.

이 밖에도 종무식에서 △김성환(주민생활지원과) △김경애(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김진원(경북도산악연맹 이사) △김종철(청송군레드민턴연합회장) △한국수자원 성덕담 건설단 △한국도로공사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단 등 10여 명이 2014년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공무원, 기관에 대한 군수표창을 한다.

이창재 기자

군위 SNS 홍보단 떴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전국알리기 본격 시동

군위군은 29일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적극 알리는데 앞장 설 군위군 SNS 홍보단 위촉식을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군위군 SNS홍보단은 회사원, 자영업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군위를 사랑하는 13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우리군의 축

제나 다양한 행사 등을 현장 취재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숨겨진 맛집, 명소 등 군위의 다채로운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를 자유롭게 취재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군위군과 관련된 이슈와 동향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군위군은 SNS홍보단 운영을 2015년 군위군 정부3.0 대표과제로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군민과의 소통공간 중심에는 이제 SNS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SNS홍보단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알리기 위한 생생한 현장

소식과 참여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근 기자

ESGumi

자긍심 높은 문화체육도시 도약!!

www.gumicity.com

교육수도 대구 인성교육 수위에 서다

학교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중등교사, 인성교육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휩쓸다

대구시교육청 소속의 중등교사들이 인성교육의 수위(秀偉)에 섰다.

지난 11일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인성교육중심사업지원센터가 주관한 '2014년 인성교육중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 대구의 중등교사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 대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성교육 중심수업강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2013년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2회 째 맞는 대회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과정중심의 평가 방법의 도입으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실수업개선 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이다.

초, 중, 고등학교 급별로 심사가 이루어진 공모전에서 중학교의 대상은 '마중물인성교육연구회'가 차지했으며, 고등부 최우수상은 도원고등학교 정미애 교사가 차지했다.

특히 대상을 차지한 '마중물인성교육연구회'는 우리 대구의 4개 중학교(사립1, 공립3)의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회로 회원은 다사중배혜선(영어), 최시강(영어), 월서중 김동우(수학), 덕원중 차유경(가정), 매호중 이근희(가정) 교사들로서, 경력 10년 미만 교사 2명, 10년~20년 미만 교사 1명, 20년 이상 교사 2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은 '수업이 바뀌면 아이들은 꿈을 끈다'라는 주제로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의 핵심은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수업실천에 노력을 기울이며, 각자의 수업 경험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수업변화와 연구 활동을 펼쳤다.

연구회 활동의 시작단계에서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인성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인성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교과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족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축적된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수업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어려우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경쟁이 아닌 협동과 나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를 통한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평소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사의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학생 참여형 활동중심 수업을 통해 인성요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업내용의 적절화 및 차시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으며, 평가방법도 자기평가, 동료평가, 모둠 평가, PAS형 수시평가 등의 과정중심 평가 방법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인성을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할까?', '수업시간에 진도 나가기도 벅찬데, 인성도 가르친다면 도대체 시험은 어떻게 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출발 했지만 연구활동을 통해 인성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성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하는 것임을 연구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원고등학교 정미애 교사는 음악교사로 평소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를 듣든지 세우고, 주위를 돌아보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를 위해 교과와 인성교육의 창의적인 접목을 시도해 다양한 수업 시간의 체험을 통해 익히고,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하고자 뮤지컬 수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기노래 만들기 연주 수업, 음악의 즐거움을 통해 인성을 다지는 감상수업을 시도하였다. 임시 공부에만 몰입하여 감정적, 정서적으로 무기 건조해 질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감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성을 바르게 함양하도록 한 것이다.

뮤지컬 수업은 학생들이 함께 짠 뮤지컬 만들기 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함'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친구와 이야기 하게 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어울려 함께 작업하는 것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수업 후 소감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기의 노래 만들기 연주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작사, 작곡하고, 이것을 악보에 담아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 연주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결심이 담긴 노래를 만들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였다고 한다.

김치영 기자

'단위학교 행정실 업무매뉴얼' 경북교육청, 표준매뉴얼 보급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학교 행정실 업무 전반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행정실의 근무경력이 많고 실무능력이 뛰어난 6~7급 공무원 31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매뉴얼을 개발했다.

매뉴얼은 일반행정, 인사관리, 학교회계에·결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시설물관리 등

학교 행정실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에 책자로 우선 배부하고, 각급 학교에는 내년 1월에 e-book을 개발해 CD로 공급하는 한편,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뉴얼 업데이트와 보완으로 교육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대구보건대, 의료기사 국시 '힙쓸어'

전국 수석·차석 동시 배출 임상병리사 수석 이경환씨 안경사 차석 이근영씨 차지



대구보건대학교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2014년 의료기사 국가고시에서 전국수석과 차석을 동시에 배출했다.

주인공은 이 대학교 임상병리과 3학년 이경환(23)씨와 안경광학과 3학년 이근영(26)씨다. 이경환 씨는 전국 2949명이 응시해 2,184명이 합격한(합격률 74.1%) 제 42회 임상병리사 시험에서 280점 만점에 274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이근영 씨는 전국 2198명이 응시해 1674명이 합격한(합격률 76.2%) 제 27회 안경사 시험에서 250점 만점에 246점을 받아 차석을 차지했다. 이 두 사람의 학교 성적은 졸업평점 4.5점 만점에 4.42점과 4.46점을 받아 각각 학교 수석을 차지했으며 교수가 돼 재자를 양성하고 싶다는 목표도 같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서 고교를 졸업한 이경환 씨는 전통과 취업을 고려해서 대구보건대학교에 진학했다.

꼼꼼하고 분석적인 본인의 성격과 학과 특성이 잘 맞아 1학년 때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했다.

국시에서 수석을 노려보자는 교수님의 제안에 한번 해보자고 결심 한 이 씨는 시험 3개월 전부터 매일 15시간 이상 공부에 매달려 수석을 차지했다. 학과와 국가고시 동시 수석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이 씨는 2차 목표를 수도권 대형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취업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경환 씨는 "정확한 검사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 성장한 뒤 교수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근영 씨는 울산의 4년제 대학(울산대 수학과)을 중퇴하고 창업의 꿈을 따라 대구보건대학교에 진학했다.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학

2014년 의료기사 국가고시에서 임상병리사 수석을 차지한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이경환(왼쪽)씨와 안경사 차석을 이근영씨(오른쪽)가 29일 오후 대학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홍보대사, 학과 대표, 학업멘토 활동 등 학교생활도 뛰어났다.

국시대비 수차례 모의고사 성적이 만점으로 주위에서 수석합격의 기대를 받았으나 1점차로 아쉽게 차석을 차지했다. 졸업 후 공부와 일을 병행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 씨는 "국시는 차석이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1등으로 달려가고 1등을 갈라내는 멋진 멘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병리과 학과장 박철민(49) 교수는 "국시대비 특강, 학생과 일대일상담, 격려 등 우리 대학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석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올해 임상병리사 수석 이외에 2012년 치과위생사, 2011년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2009년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등 최근 6년간 6명의 국가고시 전국수석을 배출했다.

정하나 기자



대구·경북 시도민 위한 신년음악회

경북대, 1월 15일 전석 무료

경북대와 경북대 동문들이 올미년 새해를 맞이해 준비한 신년음악회가 지역민들을 찾아간다.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총동창회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7시 30분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을 위한 경북대학교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시작해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유수영 경북대 교수의 지휘로 'SBS 스타킹 멘토 성악가' 베이스 권순동을 비롯해 바리톤 노윤병, 테너 노성훈·김도형, 소프라노 유소영·김은형, 메

조소프라노 구은정, 바이올리니스트 이광호 등 경북대 교수와 경북대 출신 국내 정상급 성악가 및 연주자들이 출연한다.

신년음악회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레하르의 오페라 라미스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요한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를 비롯해 시도민이 향수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한국가곡과 클래식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신청은 1월 2일까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추첨을 통해 개별 통지 후 초대권을 무료로 배부한다.

정하나 기자

대구대 작업치료학과 첫 졸업생 국시 전원 합격 현장형 임상실습체계 구축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 17명이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제42회 작업치료사 면허시험'에서 전원 합격했다.

2011년 신설돼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 학과는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률(정원 20명 중 17명 합격, 군복무 3명)을 기록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적으로 총 1972명이 응시, 1320명이 합격해 6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작업 치료기법을 적용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공인 의료재활 전문가다.

2007년 노동부가 발간한 '한국직업전망 보고서'에 미래 성장 직업 20선 중 3위에 올랐고, 같은 해 미국 'U.S. News&World Report'가 발표한 미국유망직종에도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직업 상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구대 작업치료학과는 신설학과임에도 미국, 캐나다 등 취업 이민까지 고려한 선진국형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맞춤형 교육과정, 현장형 임상실습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또한,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경산캠퍼스)과 재활과학대학원 석사과정(대구캠퍼스)을 개설해 작업치료 연구 및 교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단과대학 규모의 재활과학대학 내에서 재활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타학과(직업재활, 언어치료, 재활심리, 재활공학, 물리치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는 대구대만의 장점이다.

김한 대구대 작업치료학과장은 "첫 졸업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대구대 작업치료 학과의 잘 갖춰진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전국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윤 기자

대구과학대 7일간 국토대장정 돌입

대구과학대학교 학생회는 29일 교내 국제세미나실에서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2015년 1월 4일까지 7일간의 국토대장정에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I LOVE DOKDO'라는 주제로, 각 학과에서 선발된 80명의 재학생을 포함해, 지도교수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국토대장정 단원들은 대구과학대를 출발해 금호, 영천 호국원, 옥산 세심마을, 경

주 양동마을, 칠포해수욕장을 경유해 영덕 삼사해상공원까지 총 140Km를 도보로 횡단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섬 독도 관련 플래시몹 제작, 독도수호 장병에게 편지쓰기, 독도 관련 역사레포트 작성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독도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과학대 제22대 정지원 대의원의 의장은 "학우들과 손잡고 걸으며, 선조들께서 물려주시 소중한 자산인 독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추운 겨울날씨지만 학우들과 뜨거운 우정으로 안전하게 국토대장정을 완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하나 기자

아름다운 말로 언어폭력 예방 '앞장'

울진교육청, 아름다운 말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 6편 수상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울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 교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말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울진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아름다운말, 1·3 사랑나눔운동'의 일환으로 1년 동안 학교에서 아름다운 말 실천한 내용을 총 18편의 사례를 발표한 결과 6편이 수상했다.

1·3 사랑나눔운동이란 하루 3가지 아름다운말(칭찬, 격려, 희망을 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울진교육지원청은 학생실천교재인 '바르미노트'를 제작해 관내 초·중학생 모두에게 배포 및 활용도록 해 연말에 교육장 표창을 시상했고, 학교별로 '고운말 누리단' 동아리 운영 예산을 지원했으며,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바른말 고운말 관련 연수회를 실시했다.

또한 범군민적 관심과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홍보용 주차알림판 1000개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학부모, 지역민에게 배포했다.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말 사용 다짐서, 우리말 끝맺음대회, UCC 대회, 칭찬릴레이, 인성

주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어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

허정두 교육장은 "사회는 교실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에게만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을 권장해서는 지속적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부모와 선생님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오늘날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이 언어폭력에서 비롯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바른말 고운말 사용으로 초·중학생들이 고운 심성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

김형성 기자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15**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진심이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위선이고 죄악이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게 낫다. 충동적인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여유와 침착성이 필요한 시기. 사·보·표성씨 동쪽으로부터 귀인 올겠다.

도를 닦듯 매사에 임하라. 선부른 행동은 자제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흘러가버린 물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욕심이 크면 빛만 태산처럼 썩는다. 5·8·9·11월생 신경 쓰이는 일 있겠으니 언행 조심하라.

친구가 어렵다고 지나치게 동정하지 마라. 친구를 동정할 나머지 마음이 그곳에 얽매이게 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1·4·9월생 남편의 바릇은 오래 갈 듯. 참는 게 도 한계가 있는 법. 현명한 판단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져라.

재고 쌓인 창고만 봐도 숨이 막힌다. 실용성과 내구성이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더 창조적으로 보강하라. 마케팅 전략에서 우세하게 다. 재정은 말·토끼·닭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눈이 있되 앞을 볼 수 없는 형세다.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의욕마저 없으면 성취하기 어렵다. 당신이 설 명은 본인이 찾아라. 지나친 눈치작전은 입을 떠나보내게 한다. 사랑을 표현하라.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실수를 동반할 수. 사·보·표성씨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침착함과 여유를 찾을 때. 애정에 겨울바람이 불고 있다.

노동은 삶의 보물이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끈기와 인내로 이겨내라. 자신의 삶을 개척할 주인공은 본인이다. 사업면중은 금물이다. 기·사·표 성씨 생각지도 않던 사람과 결합할 운. 심사숙고해서 결정함이 좋겠다. 1·5·8월생 파란색이 길한 색.

좀벌레는 소리 없이 귀중한 옷을 구멍 낸다. 자기점검과 회사의 재정(경리장부), 인간관계, 사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재정검. 정리정돈함이 좋을 듯. 기·보·표성씨 내 사랑은 내가 찾아야 한다.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라. 안일한 마음가짐을 물리쳐야 한다. 지혜가 필요한 때. 기·사·표 성씨 연상의 연인에게 유혹당하지 마라. 순간의 실수가 일생을 좌우한다. 동업자는 남·서쪽에 행운 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심신을 다스려라. 과한 불평, 불만은 역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반성하는 자세와 침착함이 요구된다. 현실에 충실하라. 4·5·11월생 계속되는 슬바꼭질 사랑, 마음을 다스려라. 기·사·표 성씨 지리수 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뒤끝은 깨끗해야 뒷말이 없는 법. 기·사·표 성씨 자존심을 회복하라. 직장은 금물이다. 새로운 직업을 찾되 미련은 두지 마라. 1·4·8·9월생 파란색이 길조.

한평생 '이게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라. 불행한 인생을 자초한다. 적어도 자기 인생만은 자주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법. 1·4·7월생 도매업 종사자는 사업반청 수 있다. 기·사·표 성씨는 검정은 흉색이니 피해야 좋을 듯.

문화산업펀드 규모 1조 원 돌파

‘모태펀드 문화계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펀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문체부 출자재원으로 조성한 모태펀드로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성장 잠재력이 있거나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성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가 올해 총 4개 분야, 815억 원의 펀드가 신규 결성돼 모태펀드 조성 이후 최초로 펀드 규모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

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51개 펀드, 1조 549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는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250억 원), 게임(140억 원), 제작 초기(210억 원), 콘텐츠유통(215억 원) 등 정책적 분야별로 조성돼 있다.

이 분야는 뛰어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민간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펀드 결성의 의미가 크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그간 조성된 펀드를 활용해 1500개 업체에 1조 3000억 원 가량을 투자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발전과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 가장 많이 내려받은 곡, '썸'



결그룹 '씨스타' 소유(22)와 가수 정기고(34)가 함께 부른 '썸'이 올해 가장 많이 내려

받은 곡으로 꼽혔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가 운영하는 가온차트의 '2014년 연말결산' 결과다. '썸'은 '연간 다운로드 판매량'을 비롯해 '연간 스트리밍 판매량' '연간 디지털 총 판매액' 등 3개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확인했다.

'연간 앨범판매량 순위'에서는 그룹 '엑소-K'의 '중독'(Overdose)이 1위를 차지했다. 그룹 '엑소-M'의 'U(Overdose)', 그룹 '슈퍼주니어'의 7집 '마마시타(Mamacita)', 그룹 '동방신기'의 '텐스(Tense)', 그룹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Mr.Mr.)'가 뒤를 이었다.

'연간 노래방 애창 순위' 1위 자리에는 가수 임창정의 '소주 한잔'이 올랐다. 2위는 가수 박효신의 '야생화', 3위는 태양의 '눈, 코, 입', 4위는 그룹 '빅마마'의 '체념', 5위는 밴드 '이지(izi)'의 '응급실'이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발라드와 힙합, 댄스 등 다양하게 사랑을 받은 한 해였다"고 말했다.

가족행사 많은 달 TV 더 안봐...

어린이·어버니날 TV안본다
하루 평균 8시간14분 시청

올 한해 가구별 TV 시청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14분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TNMS가 지난 1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200가구 TV 시청 시간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시간10분 보다 4분 증가한 수치다. 2012년(8시간36분)보다 22분 감소, 2011년(7시간 48분)보다는 26분 늘었다.

월별 TV 시청 시간은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2월이 8시간59분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행사가 많은 5월은 7시간51분으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9시간 22분, 시간대별로는 일요일 오후 9시대가 42분으로 가장 많았다.

채널별로는 KBS 1TV가 1시간 17분으로 1위를 차지했다. KBS 2TV와 MBC TV가 각각 58분이었다. SBS는 52분이다.

종합편성 채널 중에서는 MBN이 19분(전국 유료매체 가입 가구 기준), PP 채널에서는 MBC드라마넷이 12분(전국 유료매체 가입 가구 기준)으로 많이 시청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12월28일까지 오후 5시~7시대에 방송한 일요 예능 코너 시청률은 MBC TV '일밤'의 '진짜 사나이'가 13.4%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요 예능 코너 시청률 1위(15.3%)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KBS 2TV '해피선데이'의 '1박2일 시즌3'이 12.5%, '해피선데이'의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11.8%, MBC TV '일밤'의 '아빠어디가 시즌1'(중영)이 11.1%, SBS TV '일요일이 좋다'의 '런닝맨'이 10.9%로 뒤따랐다.

일요일 5시~7시대 예능 인기 코너들은 여자 40~50대가 장악했다. '진짜 사나이' 코너는 여자 50대(11.2%), '1박2일 시즌3'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여자 40대에서 각각 10.3%, 10.4%로 인기가 많았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린 'SeMa 백남준 에디션'이 열렸다. 서울시립미술관과 강남문화재단이 함께 했던 이 전시에서 백남준의 설치미술,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미술시장 불황’ 신규 전시공간 119곳 ↓

미술계 불황으로 2014년 박물관·미술관·갤러리 전시공간이 줄었다.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올해 박물관·미술관·갤러리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문을 연 전시공간은 119곳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7곳이 줄었다. 2009년 99곳, 2010년 144곳, 2011년 176곳, 2012년 182곳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166곳)부터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48.7%에 해당하는 58곳이나 됐다. 종로구가 22곳(3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8곳), 강남구(7곳), 용산구(6곳), 마포구(4곳), 서초구(4곳), 서대문구(3곳) 등이 뒤따랐다. 최근 한남동과 이태원 일대가 핫플레이스가 되며 개관하는 곳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3곳), 부산(10곳), 제주(6곳), 강원도(5곳), 대구(4곳) 등이다. 월별로는 3·4·10월에 18곳으로 가장 많은 전시공간이 생겼다. 3·10월이 각 18곳, 6월이 17곳, 7·9월이 각 9곳 순이다.

전체 55%에 해당하는 66곳이 화랑이었으며 박물관 17곳, 복합문화공간 11곳, 전시관 8곳, 미술관 7곳, 창작센터 3곳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문화 콘텐츠 전시를 통해 관광홍보 성격의 화랑, 전시관, 박물관들이 많아졌다. 4월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영국 BBC가 발표한 2014년 위대한 8대 뉴미술관에 선정됐고, 7월 종로구 율곡로의 한양도성 박물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용산구 서빙고로에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구 소월로에 나전칠기를 수집·연구·전시하는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이 개관했다. 오

지난해 보다 47곳 줄어 2013년 부터 감소 시작

래된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2월에는 강원도 태백시 철암역 일대 11개 건물에 생활사박물관, 아트하우스 등을 조성해 철암관광역사촌으로 리모델링했다.

3월 팽택시와 경기문화재단이 팽택 K-6 미군기지 주변 마을 재생프로젝트의 하나로 경기도 팽택시 팽성읍 안정리의 옛 안정보건지소를 고쳐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성과 미래상을 담은 문화예술 거점 공간 팽성예술창작공간(Art Camp)으로 만들었다. 9월에는 종로구 율곡로 옛 공간사육을 리뉴얼한 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 10월에는 중구 세종대로 덕수궁의 석조전이 5년간의 복원을 마치고 대한국역사관을 개관했다. 제주에는 아라리오뮤지엄 문봉모델, 탐동로에 아라리오뮤지엄 탐동바이크샵,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가 생겼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미술계는 여전히 침체다. 1월에는 중앙그룹이 운영하는 갤러리 중 부천지점과 용인지점, 8월에는 랍아트바자가 휴관했다.

또 2월 한국의 복식 문화를 뉴욕에 알리기 위해 만들었던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의 이영

희한국문화박물관, 6월 리시갤러리, 7월 대안문화공간아지트, 8월 아트클럽1563, 10월 순천갤러리와 흠바위갤렉션, 11월 갤러리아엔 미술을 담은 등 재정으로 폐관하는 공간이 늘었다.

이전한 화랑도 많았다. 1월 경주 노서동 라우갤러리가 황성동, 인사동 갤러리바이올렛이 관훈동으로 옮겼다. 2월 청담동 아라리오갤러리서울이 소격동, 3월 공평갤러리가 공평동에서 인사동, 5월 대전 아주미술관이 아시아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주로 이동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점은 지난해 2월 폐관한 베이징점을 상하이로 이전 재개관했고 6월 강남구 신사동 옆집갤러리가 옥수동으로 이전했다.

한편,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박물관 건립으로 타당성 사전 평가와 등록무제 시행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됐다. 특히 2010년에 시작된 대구시의 이우환과 친구들 미술관 사업은 지자체의 장기 운영 비전과 작품 확보에 대한 밀그림 없이 시작돼 올해 사업 포기를 발표, 휴유증을 남기고 있다. 경기도의 지원예산이 크게 줄면서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전시장 전시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큐레이터 부당 채용으로 직위 해제,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인사와 제주도립미술관 김연숙 관장 선임절차 논란도 일었다. 사업박물관장 개인 참고에 논란 국경수집 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외국 유수 아트페어에서 한국 단채화 작가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은 올랐으나 일부 대형 화랑과 경매사 중심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인간에 대한 진심, 저마다의 사정...



복직을 앞둔 '산드라'에게 전화가 온다. 회사 동료들이 그녀와 일하는 대신 보너스를 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월요일 아침 재투표가 결정되고, 일자리를 되찾고 싶은 산드라는 주말 동안 16명의 동료를 찾아가 설득하기로 한다. 상여금을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말이 어려운 산드라, 각자 사정이 있는 동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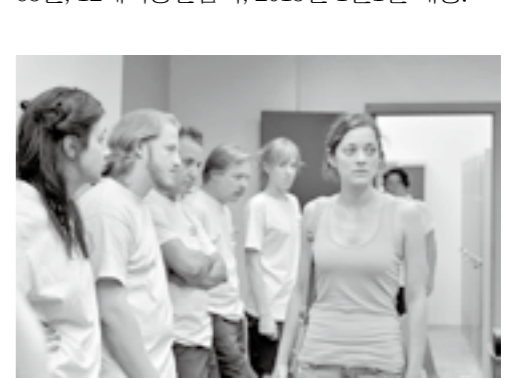
마음을 바꾼 그녀를 지지해주는 동료도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쪽의 반발도 거세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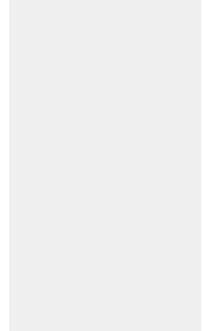
올해 칸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내일을 위한 시간(two days, one night)'의 줄거리다.

동료 열여섯 명을 만나기 위해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월요일 아침이 오기 전까지의 주말이다. 원제목 그대로 두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그녀의 간절한 여정이 이어진다.

이 단순한 구조의 긴장감을 보는 이들을 온전히 극에 몰입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다. 반복적인 대사와 상황의 연속이지만 동료들 저마다의 다양하고도 타당한 사정은 극을 미묘하게 변주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흥미로운 긴장감을 유지하게 한다. 등장하는 동료들의 순서를 산드라의 드라마틱한 감정선을 살리

는데 맞춰 구성했다. 첫 번째 동료는 산드라가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전화 통화를 거쳐 의견을 바꾸는 인물로 설정됐다. 이후 보다 복잡한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관객들은 산드라를 따라 그녀의 동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어느덧 그녀의





우리은행 임영희 3라운드 MVP

WKBL

MVP 2012-2013시즌 2라운드 이어 두 번째

여자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의 임영희(34)가 3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014-2015 KB국민은행 여자프로농구 3라운드 MVP 투표 결과, 총 96표 중에 45표를 획득한 임영희가 34표를 얻은 부천

하나위환의 엘리사 토마스를 11표 차로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발표했다. 임영희가 MVP로 뽑힌 것은 2012-2013시즌 2라운드 이어 두 번째다. 임영희는 3라운드 5경기에서 경기당 28분38초를 뛰며 12점 4.4리바운드 4.2어시스트로 우리은행의 공격을 이끌었다. WKBL 심판부, 경기 운영요원, TC, 감독관 투표로 진행되는 기량발전(MIP)상은 하나위환의 신지현이 받았다. 신지현은 5경기에서 평균 8점 2리바운드 4.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TEAM 2002 '프로젝트' 1억 쾌척

2002월드컵 4강 주역, 축구계 기부금 전달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한국 축구계를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등으로 구성된 '팀 2002'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3층에서 'TEAM 2002 프로젝트 축구발전기금 전달식'을 열고 1억 원을 기부했다. 팀 2002가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과 손잡고 마련한 기부금 1억 원은 한국OB축구회(3000만 원), 한국축구인노동조합(3000만 원), 전 축구선수 신영록과 이재호씨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홍명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팀 2002가 한국 축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그 결과 매년 연말에 우리가 지정한 곳에 1억 원씩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좋은 취지의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곳인 OB축구회와 불의의 사고로 축구를 중단한 선후배에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팀으로서 개개인으로서 한국 축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팀 2002와 뜻을 함께한 넥슨이 1억 원을 출연하면서 마련됐다. 대신 넥슨은 온라인 축구게임에 팀 2002 멤버들의 초상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수원삼성 유니폼을 입고 지난 2003년 프로에 데뷔한 신영록은 지난 2011년 제주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뒤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재활 중이다.



29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팀2002 프로젝트 축구발전 기금 전달식에서 전 제주 유니티드 소속으로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신영록 선수에게 첫 번째 기금 전달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뒤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태욱, 이민성, 박항서 전 감독, 윤정환, 김병지, 홍명보 전 감독, 신영록 선수, 김정환 한국OB축구회 회장.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은 신영록은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축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 5시간씩 꾸준히 재활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록과 함께 2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게 된 이재호씨는 고려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년 대학 연맹전에서 뇌진탕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언어와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축구인 노조 송영대(56) 사무총장은 "2002년 월드컵 영웅들이 우리들에게 기부한 것은 축구에 어두운 곳, 입김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여러분들과 지도자들이 열심히 해달라는 응원의 뜻으로 생각한다. 그 뜻을 잘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넥센 문성현, 데뷔 첫 역대 연봉

올해 연봉 8500→1억1000만 원

넥센 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의 토종 선발 요원인 문성현(23)이 데뷔 첫 역대 연봉을 받게 됐다. 넥센은 29일 문성현과 올해 연봉 8500만 원에서 2500만 원(29.4%) 인상된 1억 1000만 원에 2015년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문성현은 올 시즌 20경기에 등판해 85%이닝을 던져 9승4패1홀드 평균자책점 5.91을 기록했다. 개인 최다승이자 넥센 토종 선수로는 가장 많은 승수를 챙겼다. 문성현은 "데뷔 이후 첫 역대 연봉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올 시즌 중반에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갔을 때가 생각한다. 중요한 시기에 선발 로테이션

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팀에 미안했고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승수를 쌓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하지만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했던 만큼 멘탈을 다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성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시즌에도 선발 투수로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 팀당 경기수가 144경기로 늘어나면서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은 "스프링캠프 동안 선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서 "두 번째는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로테이션을 잘 지켜내는 것이고 마지막 목표는 기록 없는 피칭으로 올해 놓친 10승을 거두는 것이다.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넥센은 연봉 계약 대상자 46명 중 42명(91.3%)과 협상을 완료했다.

'슈틸리케호' 골 결정력 해소 방안은 제로톱?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슈틸리케호'가 골 결정력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11월 중동 원정을 다녀온 뒤 "공격수들의 부진이 아쉽다.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 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 결정력이 문제"고 우려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 전지훈련까지 소화한 대표팀이지만 최전방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6경기 연속 골이 없던 박주영(알사람)마저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제외되면서 아시안컵 무대에는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 자이시), 이정협(상주) 세 명의 공격수만이 발탁됐다. 186cm의 당당한 체구를 갖춘 이정협이 깜짝 발탁됐지만 그는 소속팀에서도 주로 20-25분 정도 조커로 나선 경력이 많다. 아직 정확한 활용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이정협을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슈틸리케 감독은 '가짜 9번' 공격수를



활용하는 제로톱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팀은 이청용(불탄), 손흥민(레버쿠젠), 남태희(레퀴야SC) 등 활동량이 많은 2선 공격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위치 변경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좌우 측면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예상된다. 슈틸리케호에는 김진수(호펜하임), 차두리(서울) 등 오버래핑이 뛰어난 측면 풀백들이 포진하고 있다. 대표팀은 11월 열린 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차두리의 크로스를 한교원(전북)이 헤딩으로 연결해 득점으로 연결시킨 바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1월 마지막 경기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고 오겠다며 우승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슈틸리케 감독이 내달 호주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어떠한 공격 전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나바로 등 2015 외인타자 판도는?

타율 0.308 31홈런 공동 5위 98타점 5위 25도루 11위 활약

2014시즌 한국 프로야구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외국인 타자 야마이코 나바로와 에릭 테임즈가 모두 국내 잔류를 선택, 2015시즌에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나바로는 28일 삼성과 총액 85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 2년 연속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다. 나바로에 앞서 테임즈는 이달 초 NC와 10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쳤다. 2014시즌 3년 만에 프로야구에 다시 등장한 외국인 타자들은 각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에서도 나바로와 테임즈의 활약은 돋보였다. 나바로는 타율 0.308 31홈런(공동 5위) 98타점(5위) 25도루(11위)로 맹활약을 펼쳤다. 역대급 타고 투저 시즌에서 타율은 리그 31위에 그쳤지만 홈런과 타점은 클린업 트리오 못지않았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나바로 활약은 이어졌다. 나바로는 홈런 4방을 비롯해 24타수 8안타 10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한국시리즈 MVP에 선정됐다. 외국인 선수로서 역대 3번째 한국시리즈 MVP가 된 것이다. 2년차 NC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테임즈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타율 0.343 37홈런(3위) 121타점(2위)을 기록하면서 NC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실력뿐 아니라 테임즈는 최근한 성격으로 국내 선수들과도 거리낌 없이 지냈다. NC가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지만 프로야구 적응을 마친 테임즈가 2015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SK와 두산은 제외하고 8개 구단은 외국인타자 영입을 마무리한 상태다. 나바로와 테임즈를 제외하고 브렛 필(KIA)과 브래드 스나이더(넥센)도 2015년 한국에서 활약한다. 필은 올해 9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9 19홈런 66타점의 성적을 남겼다.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실심한 플레이 등은 호평을 받았다. 2014년 시즌 중반 LG에 합류했던 스나이더는 시즌 종료 후 넥센으로 팀을 옮겼다. 정규리그에서는 타율 0.210 4홈런 17타점으로 아쉬웠지만 시력을 교정 후 포스트시즌에서 맹타를 휘둘러 다음 시즌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LG, 롯데, 한화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새로운 선수들을 선발했다. LG는 과거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한솔밥을 먹었던 켄 한나한을 영입했다. 한



나한은 빅리그 통산 614경기에 출전, 타율 0.231 29홈런 175타점을 기록한 테베랑이다. 파워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LG 내야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에 합류한 켄 아두치는 2013년과 2014년 텍사스에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그는 61경기에서 타율 0.189 1홈런 8타점 5도루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성적은 902경기 타율 0.285 41홈런 358타점이다. 아두치는 빠른 배트 스피드와 정교한 타격이 장점이고 외야 수비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가 펠릭스 피에를 대신해 영입한 나이저 모건은 메이저리그 통산 598경기에서 타율 0.282 12홈런 120도루를 기록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2도루(NL 2위), 34도루(NL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발을 갖춘 선수다. 일본야구 경험도 있는 모건은 거친 성격을 갖춘 선수다. 과거 자신에게 야구를 퍼붓는 관중에게 공을 던지거나 상대 선수와 난투극을 펼쳐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5시즌 1군 무대에 진입하는 kt도 메이저리그 경력의 앤디 마르테를 영입했다. 마르테는 빅리그 307경기에서 타율 0.218 21홈런 99타점의 성적을 남겼다.



의료·건강 소식



성장기 청소년 척추측만증

방치하면 건강 위협 받아

최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정하거나 심지어 엎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에 오래 열중하게 되면 척추에는 큰 무리가 갈 수 있다.

그 밖에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 무거운 가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척추 측만증이 쉽게 유발되는데 초기에는 경증의 허리 통증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방치하다 성인이 돼 후기 측만증으로 통증에서달리는 경우가 많다.

척추가 옆으로 굽고 휘어지는 척추측만증은 10-15세 사이 급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특히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포바즈 원주점 경희미래한의원 체형교정클리닉 배재현 원장은 "척추측만증 초기에는 요통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후기로 진행할수록 일자목 증상으로 인한 목 통증, 디스크나 좌골신경통 증상, 허리, 걸음걸이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해지면 두통이나 폐를 압박하여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부모의 정기적이고 세심한 관찰로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 자녀의 등을 앞으로 90도 숙이게 하고 뒤에서 보면 정상 척추와 달리 척추측만증의 경우 양쪽에 차이가 나는 것이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것.

구선영 기자

'슈퍼 곡물' 퀴노아의 효능

고단백 알레르기 유발 없어



'슈퍼 곡물' 퀴노아(Quinoa)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퀴노아는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고대 잉카제국에서 감자와 옥수수, 콩과 함께 3대 작물로 불리던 명아주과 식물이다. 쌀보다 조금 작고 둥근 이 곡물은 '곡물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다.

퀴노아는 곡물임에도 평균 16~20% 정도 단백질로 구성된 고단백 식품으로, 고대 인디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게다가 쌀, 보리, 밀 등 다른 곡류와는 달리 나트륨이나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리신, 메티오닌, 아르기닌, 히스티딘 등 9가지 종류의 필수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조성돼 있어 인체의 영양 공급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인, 철분, 마그네슘, 망간, 아연, 셀레늄 등의 각종 무기질과 미네랄을 비롯해 비타민, 섬유질, 녹말 등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다.

최유희 기자

어지러움 분야 국제전문학습지 논문 게재, 전문서적 공동집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이형 교수(50)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됐다.

이형 교수는 어지러움 분야 국제전문학술지에 100여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 어지러움 관련 4편의 외국 전문서적 집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미국신경과학회 진로지침개발위원회 주관 어지러움 공동 연구에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귀 중풍(내

동산병원 이형 교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이경색, inner ear infarction)*의 임상적 의의를 규명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한국의학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창립되어, 현재 400여 명의 의학분야 최고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

매년 소수의 정회원이 선발되며, 미래 의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의료정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업무를 맡게 된다.

이형 교수는 내년 1월 29일 대한의사협

회 3층 회의실에서 있을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제12차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 선출된다.

귀중풍(내이경색)=이형 교수는 속귀로 통하는 미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극심한 어지러움, 청력 소실 및 구토 등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밝히고, 이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명적인 후유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제시해 세계학회의 주목을 받았다.

김성용 기자



희귀 신경섬유종 건강보험 적용

'청성뇌간이식술' 등 5항목
1/10수준 200만 원 지불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피부와 뇌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는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자극을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2000만 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로 환자 부담이 컸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는 10분의 1 수준인 20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환자 부담은 10만 원에서 1.8만 원(외래)으로 줄어든다. 각막질환은 4대 중증질환과의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한다. 환자 부담이 125-205만 원에서 각각 28만 원, 45만 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밖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간암, 췌장암 등으로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시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알코올성 정신장애, 남성 60대·여성 40대 가장 多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3.5%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남성 60대, 여성은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진료인원)가 남성 60대와 여성 40대가 각각 537명과 90명으로 성별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남성은 60대 537명, 50대 501명, 70대 457명 순이고 여성은 40대 90명, 50대 87명, 30대 77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294명, 60대 287명, 70대 218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환자 수는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1만 2104명 늘고 연평균 증가율은 3.5%였다.

남성은 2008년 5만 1000명에서 2013년 6만1000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연평균 3.2%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 치료센터 이선구 박사는 "60대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수십 년 음주를 해 온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활동이 적은 노년기까지 정신적 위기를 맞는 60대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은 40대에 폐경과 함께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있고 중년기로 넘어간다"며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일종의 자가치료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0~40대 남성은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계층은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에서 크게 늘었다. 진료형태로는 입원환자는 2008년 2만 7250명에서 2013년 3만 2503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외래진료는 2008년 4만 6227명에서 2013년 5만 4973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5%였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363억 원에서 2013년 2175억 원으로 연평균 9.8%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 비중은 94%에 달했다.

■최선의 치료법은 '금주'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 내성이나 의존이 생기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인지기능과 기분, 수면, 정신병적 증상 등이 생기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나뉜다.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의존과 남용이 있다. 신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것보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질환 등을 유발한다. 가정·직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다. 갈망과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는 금단·기억장애·치매·망상이나 환각·불안장애·수면장애 등이 있다. 증상은 불안·초조, 환시·환청,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하다.

만취 상태에서 삼습적으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주폭(酒暴)과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연관성이 낮다. 주폭은 술이 문제라기보다는 충동 조절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한다.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도 식사를 하면서 적당량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김혁익 기자

늘어난 황혼육아, 노부모 '무릎' 관절은 괴로워



육아 부담으로 관절 손상 주의 맨손 체조 등 근력 강화 필수!

일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은퇴 후 삶의 여유를 즐겨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황혼육아'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 510만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 가량이 조부모가 육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지만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육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손주병으로 고생하는 노부... 무릎 관절 손상 많아 = 부모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할배(할아버지+야배), 할마(할머니+엄마)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황혼육아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황혼육아로 육체·정신적 질병을 얻은 상태를 일컫는 '손주병'을 신조어로 선정했다.

주 5일 이상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미 관절이 약해진 노부모들에게는 손목과 어깨, 허리 등의 관절 손상이 우려되는데 그중

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부위는 무릎 관절이다. 무릎 관절은 40대를 지나면서 노화가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다가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노화로 관절이 약해진 노부모가 아이를 안고 업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골 파열, 인대 손상 위험이 증가해 퇴행성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 계단 내려가기 힘들고 통증 느껴지면 치료받아야 = 육아로 무릎 관절이 손상되면 일상생활 속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계단을 내려올 때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몸의 방향을 갑자기 돌릴 때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통증이 가벼워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 이로 인해 손상이 심해지면 퇴행성관절염으로 발전한다.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연골판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아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손상 정도에 따라 증상이 경미하면 약물·물리치료로 치료할 수 있으나 심하면 관절내시경을 통한 봉합술이나 절제술 등을 시행한다.

관절내시경 시술은 무릎 관절의 최소 부위를 절개해 관절내시경을 삽입한 후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손상된 연골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신미정 기자

전문가 추천! 이것만은 '꼭' 챙겨먹자

몸에 좋은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은 늘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할 수 있거나 종합비타민이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대중적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타민 복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많은 양의 정제된 비타민을 복용하면 몸 안에 항산화물질의 극단적 증가로 암이나 또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한다. 그럼 실제 복용한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전문가들이 실제 사용자들이 복용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 효과가 좋은 것으로 꼽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

■비타민D (Vitamin D) = 2008년과 2013년 총 50여 회의 실험과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타민D를 매일 섭취한 성인이 섭취하지 않은 성인보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D 보충제를 매일 섭취한 아이는 감기에 덜 걸렸고, 노인층의 경우 뼈가 강해져 골절의 위험을 줄였다. 물론 이 조사결과들과 비타민D가 사망률을 낮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타민D를 매일 보조식품으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 (Pro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으로 쉽게 유산균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요거트 등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인체 내 해로운 박테리아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프로



바이오틱스를 체내에 활성화시키면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이유로 각광받고 있다.

2012년 82개의 실험결과와 분석자료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항생 과정 이후 일어나는 배변활동(설사)을 눈에 띄게 감소시켰다. 다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기관에 만병통치약이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정보는 아직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아연 (Zinc) = 아연이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감기치료에 관한 연구 13가지를 종합한 결과 동일한 감기에 대해 아연 보충제를 섭취한 환자가 섭취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감기기간도 짧아지고 증상도 덜 심했다는 사실을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니아신 (Niacin) = 비타민B3의 별칭인 니아신은 알츠하이머, 당뇨 그리고 두통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연구결과가 필요한 상태다. 다만, 니아신 보충제가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확실하게 증명됐다.

송종관 기자



‘자살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法’ 마련

인터넷 자살암시글 게시자의 IP 등 통신·위치 정보 확인

윤재욱 의원

인터넷에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경우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게시자의 IP를 확인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해당 개정법을 대표발의한 윤재욱 의원(새누리당·대구달서을·사진)은 10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자살 암시글을 본 사람이 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통신자료나 위치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나 목격자가 구조 요청을 하거나, 제3자가 구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가 확인돼야 위치정

어서 신속한 구호에 차질이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는 통신비밀 보호의 이유로 국가안전

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편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자살을 예고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On-Line)상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 암시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성명, ID, 닉네임 등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구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12에 접수된 자살관련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만424건이 접수돼 1만2988건(25.7%)의 위치추적이 이루어진 반면, 이 중 인터넷에 자살 암시글이 게시돼 있다는 신고 접수는 470건, 위치추적이 이루어진 것은 54건(11%)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례로, 2014년 3월14일 캐나다에 거주

하는 A씨(신고자)가 오전 5시께 112로 전화를 해서 “인터넷 여성시대 카페에 용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생각했음’이라는 제목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다”며 경찰에 글 게시자에 대한 구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이 직접 통신사업자에게 게시자 신원과 사용 IP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서 글게시자를 찾아가는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

실제로 경찰의 해당 사건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신고자에게 추가 단서 확보 요청·확인, 긴급통신자료제공요청, 주민등록조회, 주민등록지 관할 지구대 출동, 부모님으로부터 글게시자 소재지 확인, 게시자 소재지 관할 지구대 출동의 단계를 거쳤다. 이처럼 경찰이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사람

을 찾는 수 시간 동안 자살 시도자는 감기약 20알 이상을 복용한 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됐다.

자칫 자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해당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이 자살암시글이 게시된 IP와 사용자 신원을 신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장치가 있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재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관련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해 접속 IP를 포함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살기도자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구호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윤재욱 의원은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긴급 구조 체계를 정비해서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에는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지역발전 이바지... 명예로운 퇴임

영양군 기획감사실장 김진구,

민원봉사과 배재수, 보건소 이대식

영양군은 지난 26일 군수, 의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구 기획감사실장장과 민원봉사과 배재수, 보건소 이대식 등 3명의 명예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명예퇴임을 하게 된 3명의 공직자들은 평소에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빈틈 없는 업무 처리로 후배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돼 왔으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명예퇴임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이들은 퇴임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수십년간 함께 한 직장을 떠나게 돼 아쉬움도 크지만, 동료직원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만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떠나게 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영양군수를 비롯한 동료직원들은 지역을 위해 함께 일했던 소중한 동료들 떠나보내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명예퇴임을 통해 일제급씩 특별승진을 하게 된 퇴직공무원들은 향후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진구(지방부이사관 특별승진 / 1974. 10. 25. 임용 / 40년 재직) △배재수(지방보건사무관 특별승진 / 1981. 1. 10. 임용 / 34년 재직) △이대식(지방보건사무관 특별승진 / 1985. 7. 15. 임용 / 29년 재직)

권윤동 기자

최상득 청송경찰서장 퇴임

오늘 청송경찰서 회의실

청송경찰서는 30일 회의실에서 최상득 경찰서장의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는다. 퇴임식에 최상득 경찰서장 및 가족 친지, 직원 및 각 기관·협력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상득 서장은 대구 출신으로 1977년도 순경 공채 출신으로 3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북경찰청 정보과과 김천·안동·문경·예천 경찰서 정보과장,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해 정보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 지휘능력이 뛰어나 선후배 사이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최 서장은 올 1월 중순 청송경찰서장으로 부임해 주민의 31%가 65세 이상의 초고령화 지역임을 감안해 경찰이 스스로 주민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폴리스 홈 헬퍼(police



Home helper) 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올해 경찰서 평가에서 전화전철도 1위, 체감안전도 3위 등 진정한 국민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업적을 청송경찰서에 남겼다.

최 서장은 경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과 있고 있는데 후배양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최 서장의 경찰인생을 마감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 경찰의 날에 ‘40년 경찰인생을 되돌아보며’ 제호의 회고록을 발간했다.

이창재 기자

NC 이종욱, 영남대에 3천만 원 상당 야구배트 기증

2003년 프로야구 선수 시작 올림픽 등 국가대표 활약

영남대 출신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이종욱(34) 선수가 모교인 영남대에 야구배트를 기증했다.

29일 이종욱 선수가 노석균 영남대 총장을

만나 후배들에게 전해달라며 총 3000만 원 상당의 야구배트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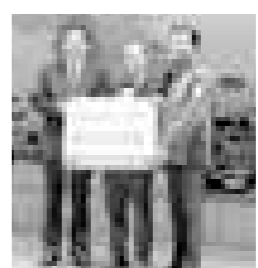
이종욱 선수는 “그동안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이제야 학교를 찾아오게 됐다”며 “비록 많지 않은 물품이지만 후배들이 운동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김용수 전 국회의원 자랑스런 초전인賞 수상

김용수 전 국회의원(86)이 지난 26일 성주 실내체육관에서 (주)제스코에서 출연 시상하는 제3회 자랑스런 초전인 상(賞)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성주드림약단에서 개최한 2014년 벌고를 장학기금 마련 자선음악회의 2부행사로 진행됐으며 상패와 부상으로 순금 한냥(37.5g)의 메달과 ‘자랑스러운 초전인 상’수상자의 집이라는 명패도 주어 졌다.



수상자는 예비역 공군소장, 11대 국회의원, 대한중석 사장, 초전 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다.

자랑스러운 초전인 상(賞)은 2012년부터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초전면민 및 출향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김두상 기자

문경시의 푸른 산림, 산림조합이 만들어 갑니다.



문경시산림조합
산림조합이 만들어 갑니다.
문의: 054-9500-9900 FAX: 054-9500-9900



산림마트 성업중



익을... 생각한다

■ 광역논단

애국가에 윤치호 작사, 최고증거 첫 발굴



신동립
언론인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1865-1945)라는 사실을 밝힌 가장 오래된 사료가 발굴됐다. 이승만(1875-1965)이 1913년 9월 하와이에서 창간한 한글월간 '태평양 잡지' 1914년 4월호의 '애국가와 찬미가'다.

1908년 윤치호 역술 '찬미가'를 언급한 최초의 보도다. "무궁화 곡조에 다른 말로 만든 것"이 애국가라고 썼다. 윤치호가 무궁화가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증언이다.

또 "찬미가는 본국에서 압수하고 매매를 금지한 책임 한 권을 우리가 얻었기로 대강 뽑아서 등재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차 노래를 애국제도로 모본하여서"라며 일제가 조선에서 찬미가를 압수하고, 애국가를 금지했음을 전했다.

당시 윤치호는 '105인 사건'으로 대구형무소에 투옥(1913-1915)돼 있었다. 판금 당한 윤치호 저작 찬미가를 교민단체가 구해 기사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개할 수 없던 내용이다. 조선총독부가 찬미가를 불온서적으로

로 낙인하자 소유자들이 스스로 폐기, 희귀해졌다는 사정도 드러났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작사자 조사위원회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책이다. 조사 기간인 4월27일과 5월2일, "윤치호 저 찬미가 가지신 분 알려주길 요망"이라는 신문고지로 공개수배했으나 끝내 손에 넣지 못했다.

찬미가 제1장에는 국가(KOREA/AMERICA), 10장에는 무궁화가(Patriotic Hymn/Auld Lang Syne), 14장에는 애국가(Patriotic Hymn/Auld Lang Syne)와 서양 찬송가 12곡이 수록됐다.

'태평양 잡지'의 '애국가와 찬미가'는 찬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무궁화가와 애국가 간 관계뿐 아니라 두 노래의 성격, 애국가의 중요성, 그리고 번역 수준도 평가했다.

"몇년 전에 윤치호씨가 찬미가라는 책 한 권을 발간하였는데 장 수는 많지 않으나 금옥 같은 것이 그 속에 있는지라 그것은 '국가와 찬송사'로 정신과 기운이 능히 사람의 마음을 더욱 흥기시키는 윤치호의 애국심과 종교심의 고창함을 가히 보겠다"

미국 교민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곡조가 서양 것이어서 모두 '번역'이라고 표현한 탓이다. 1장 'KOREA'의 곡조가 미국 국가 'AMERICA'임을 들며 "1장은 미국 국가 곡조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장은 무궁화가 아닌 이것도 본래 서양 애국가라 이는 우리가 다 항상 부르며 윤씨의 번역으로 아는

바이오"라고도 했다. 서양 곡조에 맞춘 것을 번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애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만든 것"이라고 명기, 작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12편의 찬송가 번역과 관련해서는 2장을 "국내 '통일찬송가' 146편이니 번역을 기존 찬송가보다 낫게 만든 것", 9장은 "통일찬송가" 124편인데 "대단히 잘된 번역"이라면서 원래 번역보다 힘차게 했다고 추어올렸다. 마지막 15장은 "한미 찬송가에 빠진 것"이라고 정확히 파악해 새로 부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윤치호는 일본에서 영어를 익히고 돌아와 조정에서 통역관으로 일했다. 이후 중국과 미국에서 종교학과 영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중서서원에서 영어 교수를 했다. 귀국해서는 최초의 영문법서 '영어문법정경'을 펴낸 당대 영어의 고수이므로 위 칭찬은 타당하다.

이러 "파란국(폴란드)이 조만간 독립을 하기는 세상 사람이 다 바라며 믿는 바라. 애국가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라 한인의 처지에 있는 자 보고 감동할 만한 노래"라며 애국가 1-4절 가사를 알렸다.

이 자료를 찾아낸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서지학자)는 "59년 전 애국가작사자 조사위원회는 1945년 9월 윤치호가 자필로 남긴 '1907년 작' 애국가 가사와 1910년 신한민보의 '윤치호 작사 국민가'(애국가와 동일 가사)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이 찬미가를 입수하지 못했다. 그때 이 1914년 기록이라도 물색했다면 왜 실물을 구할 수 없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애국가 작사자를 '미해결'이라고 결론 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나의 제언

삼성-LG전자 "이래서야 언제 1등 하려나"



정옥주
뉴시스 기자

평화로운 주말, 가전업계에서 느닷없이 '대낮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고의 파손 의혹'을 놓고 또 한 차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 기간 중 현지 매장에 진열한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성진 H&A사

입법부장 등 LG전자 임직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LG전자 측은 "해의 출장 시 경쟁사 현지향 제품을 살펴보는 것은 어느 업체든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며, 다른 회사 제품과는 달리 유독 삼성전자의 제품만 현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반박하며 삼성전자의 화를 돋웠다. 이후 지난 21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측이 손괴됐으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LG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3개 내며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며 싸움을 걸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자료를 내며 압박에 나섰다. 사생활단이라도 내려는 분위기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고위 임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는 불만을 품고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대응이 가전업계 최대 행사인 'CES'를 목전에 두고 조성진 사장의 '출국금지'라는 조유의 사태까지 야기한 만큼, LG전자로서는 실추된 신뢰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정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이처럼 논란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사과를 하는 대신, 삼성전자의 제품력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맞고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 처사인 셈이다. 두 회사의 사정이나 어떻든 업계에서는 양사의 오래된 '악연'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지금도 너무 늦다

국내 원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도면 등이 연일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20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완성도를 높여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당리당락의 포로가 되고 있으니 큰일이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구축이 핵심이며, 이번 한수원 사태와 같은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찬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수원 사태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총성없는 전쟁에 비견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해커는 원전 내부자료를 유출하면서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간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10여만 장의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2차 파괴

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 조사결과 한수원 내부자료를 유출했던 트위터 ID에 접속한 IP의 90% 이상이 중국 선양의 가상사설망(VPN) 업체로 확인됐다. 국경없는 전쟁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농협·연세·전산망 공격 등 지난 5년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만도 일곱 번째나 된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인력과 기술수준이 세계적 수준 이고 보면 북한이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에 나설 경우 우리가 겪을 국가적 재난과 혼란은 6-25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등 외부세력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준비를 한시도 늦출 수없는 긴급 상황인 것이다.

관련법을 마련해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국정원, 국방 분야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 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통합체제로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 방어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원점을 봉쇄시키는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더 이상 국가안위의 문제를 농단하지 말기 바란다.

'할매·할배의 날' 제정, 정말 잘한 일이다

경북도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제정하자는 두 달째를 맞아 기억할만한 행사가 있었다.

지난 27일 '할매·할배의 날'을 맞아 성가양로원내 성당에서 손주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만남과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북도와 칠곡군, 성가양로원, 동명초등학교 4차 간 호협력 다짐결연행사를 가진 것이다. 아직 싸도 튀우지 않은 시기여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는데 마침 관계 당국과 유관기관들이 나서 준 것이다.

이날 행사는 김관용 도지사, 백선기 칠곡군수, 고홍자 성가양로원장, 황병관 동명초등학교장의 결연증서 교환과 (사)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비올라 연주, 율동, 색소폰 연주 등 작은 음악회를 가져 행사 참석자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는 보도이다. 피땀이 아껴서 '할매·할배의 날'을 정해 본다면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는데 당국에서 주선해 손자-손녀의 정을 맞보게 해주다니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같은 날 23개 시·군을 비롯, 경북도의회(안동), 경북교육청(고령), 경북지방경찰청(경주)에서도 기관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로시설, 학교와의 결연행사를 가져 '할

매·할배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뼈를 에이는 혹독한 추위에 몸도 마음도 잔뜩 얼어 있었을 경북도내의 '할배'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선물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많은 일을 했지만 '할매·할배의 날' 제정을 가장 잘한 일로 칭송하고 싶다. 환난이 닥치고 흉년이 중첩해도 집안의 어른을 먼저 챙기던 우리의 아름다운 정신은 사실상 사라져 가고 있다.

현재의 노인들은 과거처럼 노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박경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손자손녀의 재물을 보면서도 가족의 중심이었던 시대도 박탈당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노인부부가 대다수이다. 어쩌다가 봉사자들이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다. 인간이 그리운 것이니. 그런 참에 김 지사가 '할매·할배의 날'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거듭주고 물주어 가며 융성하게 하는 것이다. 경북도내의 모든 노인들에게 손자손녀의 정을 맞보게 해 주기를 기원한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좋은 제도를 대구도 본받아야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신문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신문은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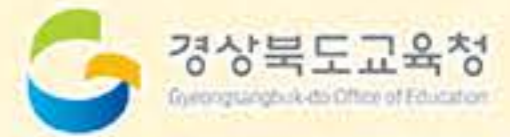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4,000원 1부 7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
에너지절약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83%가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할매 할배까지
사랑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 모두 할매! 할배! 만나러 가요~~

경상북도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손녀 얼굴 잠시도 잊고 지낸 적 없습니다

아들, 딸 데리고 마지막 토요일 부모님 뵈러 가요~~

할매·할배와 손자 손녀간의 사랑이 강같이 흐릅니다